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冲庵 金淨의 至治를 위한
노력과 挫折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申 順 玉

2016年 8月

冲庵 金淨의 至治를 위한
노력과 挫折

指導教授 金 相 助

申 順 玉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6月

申順玉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6年 6月

The Ultimate Governing for
Effort and Frustration of Chungam Kim Jeong

Shin Soon-Ok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J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16. 0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im Sang-Jo, Prof. of Korean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目 次

I. 序論	1
II. 金淨 삶의 역사적 배경과 詩論	13
III. 冲庵의 意識의 軌跡	20
1. 儒學으로의 修學	20
2. 仕宦과 事親의 變奏	29
3. 至治 實現을 위한 노력	40
4. 流配와 挫折	54
IV. 結論	66
※ 參考文獻	70
※ ABSTRACT	75

I. 序論

조선전기는 정치적으로는 역성혁명으로 왕조가 왕씨에서 이씨로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사상적으로는 불교에서 유교로의 변화가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元·明의 교체가 있었다. 개국초반에는 통치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 시국이 불안하였으며 사상적으로도 혼란한 시기였다. 고려 말에 유입된 성리학이 불교를 잠식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조선 초기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룹과 그와 반대로 은둔하여 버린 그룹이 있었다. 이 두 세력은 초기 주자학이라는 유학을 가지고 자기방향에서 각자의 입지에 합당한 학문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자학은 정치의 필요성에 의해 사장중시의 방향으로 흘렀다. 이에 조선조는 새로운 정치개혁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에 합당한 세력으로 지방에서 순수 주자학 즉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림이 출현하였다. 일명 정통 성리학을 이었다고 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성리학적 세계관의 人道와 人事(修己와 治人)이라는 이념성을 띠고¹⁾ 있었다.

향촌에 在地的 기반을 둔, 재야사림들은 훈구파의 독점적 권력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다가 성종 15년을 전후하여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金宗直(1431-1492), 金宏弼(1454-1504), 趙光祖(1482-1519)와 金淨(1486-1521)등을 주축으로 결집하기 시작한 이들 집단이 곧 사림파²⁾이다. 성리학에 대한 素養을 심화한 사림파는 성리학적 이해에 따라 天道·天理가 국왕의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왕권을 견제하였다. 물론 이들은 왕권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만 국왕이 天道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 즉 修己를 강조하였으며 ‘국왕이 천도를 확실하게 대행하지 못하고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반정을 통하여 국왕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君臣共治’를 배경으로 신권 주도의 정치체제를 추구하려 하였다.³⁾ 이를 위해 경연을 통하여 국왕의 修己를 강조함과 아울러 言官權을 이용하

1) 金鍾振, 「16世紀 士林派 文學의 研究」-己卯士林을 중심으로- 성균관대박사논문, 1991.

2) 송재소, 『한국한시작가열전』, 한길사, 2011, 193~194면.

3) 李泰鎮, 「朝鮮王朝의 儒敎政治와 王權」, 『韓國史論』23, 1990, 217~220면.

여 왕권의 절대성까지 견제하였다. 이에 따라 왕권은 신권과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사림과의 등장 이후 나타난 權力構造의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림의 등장 이전에도 言官의 중요성은 인정되어 왔으나, 왕권이나 신권, 특히 왕권에 대한 견제는 확고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宗法思想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므로 성리학의 이념을 실천하려 할 때 정통론에 입각한 종법의 확립은 필수적인 것이었다.⁴⁾ 太祖 李成桂는 종법제를 무시하고 장남이 아닌 方碩(?-1398)을 왕세자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성리학자들이 종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종법제가 정착하고 성리학도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그들은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였고 성리학의 기초를 공고히 하였다. 사직의 안정이라는 명분과 체제정비, 특히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조선왕조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 하여야만 했다.⁵⁾ 따라서 조선초기의 군신관계는 왕권의 절대성을 확보하려는 군주의 입장과 이를 인정하면서 관료제를 통하여 권력관계의 한 부분을 차지해 온 신료의 입장이 균형을 이루었다.

中宗은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반정을 통해 집권한 왕이다. 왕이 아무리 타락하고 정치가 붕괴 직전에 있다 하더라도, 왕조사회에서 왕을 몰아내고 집권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 儒家思想에 따르면 국가나 사회의 기강이 완전히 붕괴되어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아니면, 반정이나 혁명을 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孟子가 군주 교체의 가능성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정권교체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아무나 혁명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권력욕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燕山君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왕조의 중흥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쿠데타 주도세력의 추대로 왕이 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반정에 의해 즉위한 중종은 초기에 靖國功臣을 중심으로 하는 宰相權의 제약을 받으며 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약했다. 중종은 정국을 전횡하는 반정공신들에 대항해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참신하고 재기발랄한 젊은 지식인들을 등용했다. 그들이 바로 靜庵 趙光祖와 冲

4) 池斗煥, 『朝鮮前期 儀禮研究』, 서울대 출판부, 1994.

5) 李泰鎮, 「朝鮮王朝의 儒敎政治와 王權」, 『韓國史論』23, 1990, 217~220면.

庵 金淨 등의 신진 사림 세력이었다. 어느 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견제 하면서 왕권을 확립하려 하는 중종의 이러한 노력은 재위 동안 계속되었다. 이것은 왕권을 어느 정도 확립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편으로 왕권이 신권과의 상대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왕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물이나 정치세력을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⁶⁾

16세기는 중종반정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戊午·甲子の 두 土禍를 치루고 나서 중종의 시대는 유교적 원칙에 입각한 정치를 실현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래서 연산군 치하에서 집중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金宗直 학통의 사림세력이 다시 중앙 정치의 일선에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신진 사림과 기성의 勳舊勢力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림과는 왕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성리학적 이념을 정치에 실현하려고 고심했고 孔·孟에 기반으로 王道政治를 구현하려고 시도하였다. 왕도주의에 입각한 정치이념을 ‘至治主義’ 또는 ‘道學政治’라고도 한다. ‘왕과 관료들이 유학을 익혀 몸소 실천하고, 유교적 가치를 정치에 적용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치주의에 따르면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핵심인 군주가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군주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정치체제가 설 자리가 없고 정치적 교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젊은 개혁세력은 원칙에 집착하여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함으로써 수구세력의 저항을 불렀다. 중종 또한 급진적 개혁에 염증을 느끼는 한편 사림의 권력화에 대한 불안이 점점 깊어져 결국 조광조 일파를 숙청하고 말았다. 이것이 이른바 己卯土禍이다. 기묘사화는 조선 초기부터 지배세력을 형성해 온 훈구파와 새로이 정계에 진출하려는 사림세력의 갈등과 대립이 표출된 사건이다.

이 기묘사화에 관련된 사림과는 ‘至治의 實現’이라는 공동의 정치적 이상을 가졌으나 그 실천방법에서는 노선의 차이가 있었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과격주의와 김안국 중심의 온건주의이다. 조광조 그룹이 도학적 치인의 이념체계로 몰아 忌晨齋 昭格署의 미신적 사전을 정비하고 內需司長利로 인한 민폐제거를 통한 궁중정치 세력을 정리하며 昭陵復位 魯山君立後 무오·갑자사화 때 被禍人

6) 金字基, 『朝鮮中期威臣政治研究』, 集文堂, 2003, 28~29면.

의 伸冤, 반정공신의 濫勳削除, 愼氏復位 등을 관철 시켜 정치의 도덕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훈구의 지배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격하고 급진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반면 김안국 계열은 성리학적 윤리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한 온건적이고 점진적인 교화정책에 힘썼다. 그는 각 고을을 순방할 때 향교를 방문하여 특별히 『소학』교육을 권면하면서 덕행이 뛰어난 인물을 뽑아 조정에 추천하며 군주는 ‘國本’으로 인식하여 국왕 및 세자교육에 특별히 힘썼던 것 등의 일은 이러한 그의 점진적 개혁정신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김안국의 持論이 당시 과격한 조광조 그룹과 서로 부합되지 못해 두 번이나 외직으로 나가게 된 원인에서 사림과 내부의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⁷⁾ 도학정치의 이상을 공유하였지만 그 실천 방법에서 靜庵이 정치의 권력 편에 치우쳐 과격한 노선을 걸었던 반면, 慕齋는 그 도학이념의 실천적 근거를 인간주체에 두고 ‘修己’라는 교화의 온건한 노선을 추구하였다⁸⁾.

金淨은 조선의 유학자들로부터 성리학의 도통을 이은 사람으로까지 평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항상 『小學』과 『近思錄』을 가까이하며 王道政治의 이상을 실현하고자하는 道學者였다. 成宗 17년(1486)에 태어나 연산군 시대를 거쳐 중종을 도와 지치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림과 인물로 중종 16년(1521)때에 己卯士禍로 인해 36세의 짧은 생애를 마쳤다. 그는 중종시대의 인물로 靜庵 趙光祖와 함께 지치주의 도학정치의 주동 인물로써 왕의 총애를 받아 대사헌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는 성리학에 입각한 正統論을 중심으로 왕도정치를 갈망하고 『소학』을 중시하여 실천유학에 힘썼다. 전국에 향약을 선포하고 미신타파 등 도학정치를 실천하다가 「廢妃愼氏復位上疏」를 올렸다. 그로인하여 반대파에 의하여 충청도 報恩으로 유배되었고, 沈貞·南袞 등의 간계에 휘말려 조광조와 함께 화를 당하여 제주도에 유배 되었다가 賜死되었다.

중종 2년(1507)인 22세에 출사한 후 36세 사사되기까지 10여 년에 걸쳐 관직생활과 5년여의 유배생활을 하였다. 충암은 報恩과 濟州에서 두 번 유배를 당

7) 『慕齋集』, 『한국문집총간20』, 민족추진회 1988, 287면. ...先生在己卯士類中 宅心忠信 持論平正 不無矯亢 時議不事爲快 再出爲監司... 嗚呼 使先生持論得行於己卯士林則 必無激成之變.

8) 『李朝名賢集』, 成均館大學校, 大同文化研究所 發行, 1990, 7면.

하였는데 보은으로의 유배는「廢妃辛氏復位上疏」에 의한 것이고, 제주로의 유배는 신진사림과 훈구파의 대립에서 훈구파의 참소로 발생한 기묘사화에 의한 것이다. 그는 왕도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려다 희생된 16세기 사림파의 대표적인 유학자였다.

본 논문에서는 충암의 이상실현의 노력과 좌절이 그의 시와 글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考察해보고자 한다.

충암의 문학에 대한 연구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충암의 연구는 梁淳秘⁹⁾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濟州風土錄」을 중심으로 16세기 제주도의 풍토와 상황을 고찰하여 이것이 지니는 한문학적 및 민속학적 위치를 설정하려고 하였으며, 流配漢詩를 고찰하여 한문학상의 유배시의 가치가 재평가¹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濟州流配文學研究』에 종합되었다.¹¹⁾

金基東은 유배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는데¹²⁾ 충암의 생애를 成長學習期, 淸宦官僚期, 陳啓遊歷期, 至治現實期, 懷憶自嘆期의 다섯 시기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또 연구 범위를 좀 넓혀 폐비복위소를 올렸다가 보은에 유배당했을 때와 기묘사화로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의 유배문학을 아울러 검토한바 있다. 보은 유배에서는 교제관계나 자연공간을 소재로 한 시가 많고 평소에 그가 느꼈던 勳舊詞章의 無理念, 불의에 타협할 수 없었던 그의 의기가 표백되어있는 편린을 찾아 볼 수 있다. 錦山, 珍島 이배과정에서 지은 한시는 유배생활의 초기작으로 적응하기 힘든 현실세계와의 미묘한 갈등을 표출하고 있으며 결국은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별과정의 한시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濟州 流配詩를 분석하여 달과 꿈으로 표백된 시, 취흥에 잠겨 토로한 시, 봄과 봄비를 소재로 한 시로 나누었다. 여기서의 제주유배시를 연구하는데 하나의 표준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생애를 다섯 시기로 분명히 갈라놓은 것 같지만, 겹쳐지는 경계를 허용하지 않아 저작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논의 대상

9) 梁淳秘, 「金淨의 濟州風土錄」, 『語文研究』 제7권, 제3호, 1979.

10) 양순필, 「冲庵의 濟州風土錄 小考」, 『語文論集』, 제21집, 고려대, 1982.

11) 양순필, 『濟州流配文學研究』,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2.

12) 金基東, 「冲庵 金淨의 流配文學考」, 경희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3.

에 포함되는 시가 적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金鐘振은 충암의 문학세계를 사림과의 문학의식에 접안하여 도학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¹³⁾ 그는 충암 시의 특징을 存養省察과 居敬窮理의 ‘靜과 敬’으로 성리학적 기본사상에 맞추어 파악하고 자아의 내면적 지향과 자아의 객관적 현실과 갈등으로 크게 나누고, 내면적 지향에서는 修己的인 면을 객관적 현실에서는 치인과 관련지어 대사회적인 면을 다루었다. 그리고 그의 시를 성리학적 기본 논리인 存養省察과 居敬窮理로 靜과 敬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산문인 『濟州風土錄』을 논문 후반부에 함께 논하고 있다. 또한 그는 己卯士林을 중심으로 16세기 사림과의 문학적 성과¹⁴⁾와 그 위치를 근본적으로 도학이라는 이념적인 기반에 뿌리를 두고서 발전되었음을 문학사의 시각으로 밝혔고 크게는 ‘修己’와 ‘治人’이라는 사림과의 공동적 이념노선에 그 시각을 두고서 연구하였다. 그는 충암의 문학을 검토하면서 유배문학만이 아니라 그의 문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배 문학 쪽에 기울어진 감을 면하지는 못한다 하겠다.

康性能은 『海島錄』에 대한 연구로 유배 한시를 대상으로 역사적, 사회학적 방법론과 분석적 방법론을 통해 고찰하였다.¹⁵⁾ 『해도록』에 나타난 문학세계를 憂時戀君, 身上의 自歎, 自我省察, 自然愛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그는 『해도록』의 국문학적 위치를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그렇다보니 도학과와 사장파를 능가하는 문인이라고 한 것과 당대의 시풍이 宋詩風이었으나 盛唐詩風으로 한시를 썼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충암의 유배시 중 『해도록』에 관한 선행연구로서의 의의가 인정된다.

金豊起는 충암의 文學論과 시세계를 연구하였는데, 문학에서 도학적인 입장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폈다.¹⁶⁾ 또한 시를 살피는데 있어 도학자로서의 입장을 고려하고 충암의 생애가 순탄하지 않은 점에 중점을 두어 그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그는 충암의 시를 平定에의 지향과 도학적 세계, 신념의 꺾임과 귀향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는 현실에서의 갈등은 주로 어머니로 표

13) 金鐘振, 「冲庵 金淨의 文學世界」,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5

14) 金鐘振, 「16世紀 士林派 文學의 研究」-己卯士林을 중심으로- 성균관대박사논문, 1991.

15) 康性能, 「冲庵 金淨의 海島錄 研究」, 제주대 교육대학원, 1988.

16) 金豊起, 「冲庵 金淨의 文學論과 詩世界」, 『語文學報』제15권, 강원대학교, 1992.

상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혹은 귀향의식으로 치환된다고 하였다.

柳浩珍은 충암의 도학적 국면을 작품 분석 중심으로 하여 도학시의 한 유형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¹⁷⁾ 정치 풍자시에 나타난 義理精神에서는 충암이 당대 정치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한 작품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당시의 집권층인 훈구파와 달리 지치주의인 도학정치를 추구한 충암의 경향이 寓意詩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고 하면서 우의시 위주로 분석하였다. 도학적 사유의 국면에서는 충암의 도학시가 심성 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 정치 현실에 개입하여 그것을 개혁하려는 經世意識으로 도학정치의 실현에 의미를 두었다고 하면서 시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문학 세계를 접근하려 하였다. 그러나 도학시를 중심으로 시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충암의 시를 전부 파악하는 데는 다소 편협된 감이 있다.

金泰泳¹⁸⁾은 의리를 숭상한 도학이 鄭夢周를 비롯해서 길재 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내려와 中宗 시대에 이르렀고 김정은 김종직의 문인으로 辛永禧(호서사림의 거두)의 제자이다. 그의 사상은 天·人·敬 관계를 통해 敬사상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격치성정, 誠敬, 敬의 사상으로 경을 통해서 天理, 天命을 실현하고 아래로는 修己의 요체로서 마음을 모아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의 修己思想을 治人에는 仁愛思想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보아 그의 사상을 仁敬思想이라고 하였다.

林采明¹⁹⁾은 도학적 세계의 회구, 정치적 갈등과 풍자, 자연과의 친화와 향수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시의 특질로 時空交融을 통한 構成美, 情景一致에 따른 繪畫美, 冲澹한 시풍의 추구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또한 그의 시가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았는데 그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하여 후대 도학시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위상을 차지했다고 하였고 당풍을 애호하여 당풍 부흥에 선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문학적 성취를 인정하고 사립과 문학을 범주화하고 유형화 하는데 제시했다는 점을 문학사적 위상을 부여하였다고 하였다.

17) 柳浩珍, 「冲庵詩의 道學的 局面」, 『韓國漢文學研究』제17권, 1994.

18) 金泰泳, 「冲庵 金淨의 生涯와 思想」, 湖西文化研究 第13輯, 충북대, 1995.

19) 林采明, 「冲庵 金淨 詩의 연구」, 漢文學論集, 1997.

金相助의 「海島錄 研究」²⁰⁾는 충암의 「해도록」을 통하여 충암의 시세계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으며 ‘孤獨과 諦念’ 과 ‘達觀’이라는 두 극을 시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논문은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해도록」이라는 매우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는 또 다른 논문에서 「濟州風土錄」과 이건의 「濟州風土記」를 비교 고찰하여 두 풍토록의 저작배경과 세계를 비교 검토한 바 있다.²¹⁾ 이에 따르면 충암은 제주의 비유학적 민심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교화할 것을 생각하고 유학으로는 하루아침에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차선책으로 불교를 생각하였으나 토속신앙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하였다. 이에 비하여 「풍토기」에서는 역시 귀양살이의 어려움을 절절하게 말하고 있으나 충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유스럽고 여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朴守川은 「冲庵 金淨의 詩文學」²²⁾에서 김정 의 생애에 따라 대표작을 중심으로 성장과 학문 수업의 시기를 제외한 出仕期와 得意期, 挫折期로 나누었다. 출사기를 문과급제 이후부터 廢妃愼氏復位上疏로 유배를 갈 때까지로, 득의기는 그 후 자유롭게 산천을 유람하며 시문을 즐기다가 조정에 복귀하여 유가적 이상주의에 의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한 시기였다. 좌절기는 기묘년 사화로 인해 진도와 제주도로 귀양 갔다가 사사될 때까지로 나누었다. 그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좌절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에 충암이 힘쓴 학문적 성과인 시문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의 시세계를 온전히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李眞雅²³⁾는 충암의 시세계를 自嘲的宦路詩, 政治指向의 流配詩, 戀慕의 離別詩, 達觀의 閑居詩로 구분하여 충암시의 특징으로 송시풍이 당시풍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충암은 三唐詩人에 앞서 宋詩에서 唐詩로의 전환을 이루어낸 점을 들고 있으며 당풍시의 선구자라 말하고 있다. 충암의 시를 자신의 정감을 차분히 표현하고 있고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였으며 고고한 정신세계를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권력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충암의 의지가 강

20) 金相助, 「冲庵 金淨의 海島錄 研究」, 탐라문화17호, 1997.

21) 金相助, 「冲庵金淨의 濟州風土錄과 葵窓 李健의 濟州 風土記 研究」, 『大東漢文學會』, 2000.

22) 朴守川, 「冲庵 金淨의 詩文學」, 한국한시학회 「한국작가연구」4권, 1999.

23) 李眞雅, 「冲庵 金淨의 詩世界 研究」,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김유리²⁴⁾는 「濟州風土錄」의 서지학적 형식과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 하였다. 유배기간동안 제주 곳곳의 상세한 모습을 나타낸 것을 ‘향약’을 통해 지방의 질서가 확립되길 바랐던 사람으로 당시에 제주에 仁과 敬을 철학적 기초로 하여 학문적 실천에 엄격했던 충암의 도학정신은 제주사람들에게 정체성과 교육적 의미 제공자로서 큰 역할을 한 것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金甲起는 「冲庵 金淨의 文學思想」²⁵⁾에서 十一箴을 사림 지치주의자 김정의 ‘居敬躬行’의 실천적 행동강령임을 논증하려 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논증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잠이란 자아실현의 지표, 혹은 인간다운 자기 경영의 지향, 곧 삶의 지남으로 삼는 서맹이기에 화자의 가치관이나 사상의 집적물이자 포괄적 인간학의 표출이라 하였음에도 잠을 통해 충암의 문학사상을 표현하기에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전송열²⁶⁾은 충암이 宋詩를 부정하고 唐詩를 긍정했다는 측면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의 유로를 중시하는 당풍 경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가 지닌 사상이 체계적이고 이론적이 아닌 소박한 實薦儒學을 강조했다고 보고 있다. 조선 전기 시단의 흐름을 해동강서시파를 낳을 만큼의 송시풍 일색이었는데 중기에 이르러서 김정을 비롯하여 삼당시인으로 인해 唐詩風으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충암의 시를 통해 당풍의 구체적인 실상을 검증하려 하였다. 그의 시관을 제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방법론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道本文末’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직된 시관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의 유로를 중시하는 당풍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상이 체계적이고 이론적이 아닌 소박한 실천유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그의 시에 대한 의식이 16세기 후반의 사림파의 시의식과는 어느 정도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 것이다.

김풍기²⁷⁾는 「顏樂堂詩集跋」에 나타난 김정의 문학론을 문학행위와 표현내용

24) 김유리,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 탐라문화40호, 2012.

25) 김갑기, 「충암 김정의 문학사상」, 『한국사상과 문화』3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26) 전송열, 「冲庵 金淨의 詩觀과 詩의 唐風的 特質」, 『연세어문학』, 30,31합집, 1999.

27) 김풍기, 앞의 논문.

이 성리학적 도에 얼마나 근접하는가를 제기하였다. 詩道가 性情의 자연스러움에서 멀어지는 구체적인 실례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문학을 성정에서 구하지 않고 문자에서 찾는 것과 自得之妙에서 涵泳하지않고 찌꺼기나 주워 모아 엮는다는 점. 그리고 두 항목과 관련된 美意識의 문제를 蕭酸靜妙로 당대의 문학창작에 대한 비판적인 언술로 문학사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의 사상을 栗谷 李珣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는 金淨을 중심으로 앞에는 金宗直을 위치시키고 뒤에는 李珣를 위치시켜 성리학의 심화과정을 연관시켜 말하고 있다.

유호진²⁸⁾은 충암이 도학과 함께 문학, 그 가운데서 시를 중시한 것을 「顏樂堂詩集跋」에서 충암의 시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성정의 본연을 표출한 시들은 도덕적 정신의 경지를 드러낼 수 있는 장르로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충암은 시의 창작을 통해서 심성을 도야하는 도학자의 태도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충암은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람과로 인간의 바른 심성과 행동을 중요시하였다. 이들이 추구했던 도학적인 문학의 개념도 어디까지나 도를 근본으로 하는 以道爲文의 입장²⁹⁾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바른 심성에서 짝튼 문예를 중요시 하였다. “도덕을 상실함으로써 성정에서 벗어났고 文辭가 勝하자 正聲이 희미해져 갔다”³⁰⁾고 한 표현은 당시 몰사장적인 세태에 대해 사람과의 문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회가 출세주의적인 사장학에 빠져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문사만을 너무 숭상하다보니 溫柔敦厚한 인간의 정성이 멀어져 버린 것이다. 즉 문학은 자기 과시적이 외화나 출세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자기실현의 인격도야에 있음을 말한 것³¹⁾이다.

조선 시대 한시는 문학이라는 제도가 주로 생활의 일부분으로 개인의 삶 속에 浸潤되어 있었다. 사대부가 정계로 진출하기 위한 도구로 이미 일정한 형식

28) 유호진, 앞의 논문.

29) 『栗谷全書』拾遺 「與頌頤庵」 ;古之 人以道爲文 以道爲文 故不文爲文, 「한국문학총간45」, 민족추진회 1989, 506면.

30) 「顏樂堂詩集跋」, 183면. 詩者性情也...自道德喪而性情離 文辭勝而正聲微

31) 김종진, 앞의 논문.

과 규칙을 지니고 있었기에 사회적 구속은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문학창작 행위 역시 일정한 규제를 받았다. 전범에 의해 이루어진 습득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삶의 자세와 생각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 사이 개인과 세대 속에서 변별이 생겼다.

몇 차례의 사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바탕으로 새로 정치세력으로 부상되었다. 특히 趙光祖를 대표로 하는 도학자들의 지치주의가 타격을 받으면서 큰 파란을 불러 일으켰다. 흔히 己卯名賢으로 통칭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사유를 자신의 사상적 근간으로 삼고 진출하여 여러 방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이러한 시기에 그 변화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충암은 성리학적 사유로 자신을 무장한 그룹의 한 사람으로서 시대와의 대립과 갈등, 좌절 등을 겪으면서 그 속에 느끼는 감정을 문학작품으로 표출하였다.

비록 생애의 각 단계마다 다르게 반영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반영의 방식에는 나름의 美意識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충암은 정치적 제도와 철학적 사유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동시대의 사고를 담고 있다. 문학에 관한 그의 생각이 창작행위로 체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속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흔히 조선시대의 문학론은 사람과로 대표되는 載道論의 입장과 사장과로 대표되는 정치외교론적 효용론의 입장으로 설명한다. 문학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한 개인의 생각과 행위 속에 혼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충암의 시는 그의 개성과 감정이 진솔하게 표출되어 있다. 그의 시에는 도학적 측면도 있지만 감수성이 풍부한 시가 상당수 있음을 문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그의 시를 통하여 본고에서는 충암 김정이 삶의 파란곡절을 겪으면서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생각을 하였으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충암집』에 실려 있는 詩題의 總數는 387題에 557首³²⁾이다. 파란

32) 詩體別로 분류해 보면 五言에서는 絶句가 67題에 114首, 五言律詩가 101題에 142首이며 五言古詩가 42題에 55首, 七言絶句가 100題에 153首, 七言律詩가 47題에 73首, 七言古詩가 12題에 13首, 雜詩가 2題에 7首로 나타났다. 시를 지은 시인의 年齡別 作品數를 살펴보면 19세에 3제 6수, 20세에 5제 8수, 21세에 19제 22수, 22세에 8제 8수, 23세에 36제 48수, 24세에 18제 32수, 25세에 11제 22수, 26세에 14제 21수, 27세에 9제 15수, 28세에 32제 34수, 29세에 55제 90수, 30세에 41제 59수, 31세에 49제 76수, 32세에 6제 6수, 33세에 20제 42수, 34세에 5제 6수, 35세에 17제 20수, 36세에 21제 23수였다.

만장한 인생을 겪은 그였기에 시의 주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가 즐겨 사용한 詩體는 五言律詩와 七言絶句였음을 알 수 있다. 성정을 바탕으로 둔 유학적 정열을 가진 지식인이었던 충암이 짧은 생애에 그가 이루고자 했던 지치의 꿈이 기득권세력에 도전했다가 좌절당하는 것이 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그의 시를 고찰함으로써 아쉬웠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의 시세계를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서 그를 재인식하는 데에 일조하고자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그의 年譜를 통하여 그의 사상과 생각을 알아보고 그가 지치를 통하여 어떻게 변해갔는지 살피려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사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통찰하여 충암의 개별적 문학성과를 연구 검토한 바탕 위에서 문학 이론 및 문학세계의 위상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는 기묘명현의 한 사람인 충암을 통해 16세기 초엽의 문학사상을 알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本考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발행한 「韓國文集叢刊」23의 『冲庵集』을 텍스트로 한다. 이는 從姪인 金天宇가 모아 두었던 본가소장의 초고를 바탕으로 관직이 회복된 후인 明宗 7年(1552년)에 公州牧使 許伯琦가 간행한 木版本을 1636년에 그의 증손인 金聲發이 재편집해 刊行한 것이다. 『충암집』의 국역은 金鍾燮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³³⁾ 이 책은 충암 시문 전체를 번역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이 국역을 많이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33) 金淨·金鍾燮譯, 『國譯 冲庵集』上·下, 鄉志文化社, 1998.

II. 金淨 삶의 역사적 배경과 詩論

고려 말에 주자학(성리학)이 도입된 이후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성리학은 국학으로 그 지위를 굳혔다. 그 학통은 鄭道傳(1342-1398)·權近(1352-1409) 등으로 계승되는데, 정도전이 제거된 뒤 권근에 의해 官學風을 조성하였다. 그는 고려 말 李齊賢(1287-1367)과 그의 제자 李穡(1328-1396)의 학통을 계승하고 있는 만큼³⁴⁾ 그 자신도 詞章에 깊은 조예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제자 대에 이르러서는 權遇(1363-1419)·卞季良(1369-1430) 등은 文翰의 책임을 담당하고 정법에 밝아 국무에 이바지하는 등 사장 중심의 관학풍을 조성하였고, 鄭夢周(1337-1392)를 계승한 吉再(1353-1419)가 영남지방에 은거하면서 제자를 양성하며 詞章風을 조성함으로써 2대 조류를 형성하였다.

조선 초기에 이러한 성리학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약하여 성리학의 미묘한 뜻을 이해하기에는 미숙한 단계였다. 여하튼 조선 초기에는 성리학이 아직 체질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통적인 불교 등 비유교적 내지는 비성리학적 요소가 지배하고 있었다.³⁵⁾ 이와 같은 이질적인 사상 사이의 갈등이 ‘丁酉靖亂’으로 표출되어 世祖는 조카 端宗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서 집현전 출신의 관료들을 제거하고 비유교적 요소를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기반을 확고히 하려 하였다³⁶⁾. 이러한 과정에서 세조에 동조하여 살아남은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은 명분과 의리의 약점 때문에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문물제도의 정비에 주력함으로써 사장풍이 성리학을 압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世宗代에 설정된 유교적 기준에 따른 제반 사업이 완결된 成宗代에 이르자 좀 더 근본적인 성리학 자체의 이해를 요구하게 되었고 성종 자신도 미약한 자신의 기반을 확고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기류를 타고 등장한 이들이 吉再의 제자 金宗直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의 영남사림들이었다. 그의 제자들에 이르러서는 사장과와 도학파의 확연

34) 鄭玉子, 「麗末 朱子性理學의 導入에 대한 試考」, 『震檀學報』51, 1981.

35) 韓祐勳, 「朝鮮王朝 初期에 있어서의 儒敎理念의 實踐과 信仰宗教」, 『韓國史論』3, 1976.

36) 韓永愚, 「朝鮮初期의 歷史敘述과 歷史認識」, 『한국학보』7, 1977.

한 대립관계가 성립되어 갈등을 보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 김종직의 文道 중에 理學을 주로 하던 金宏弼(1454-1504)·鄭汝昌(1450-1504)은 도학과로, 詞章을 주로 하던 金駟孫(1464-1498)·南袞(1471-1527)·南孝溫(1454-1492) 등은 사장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김종직의 같은 제자 사이에 두 과의 확연한 분과가 이루어지면서 김굉필의 제자였던 조광조가 신진도학파의 영수로 구학파인 사장과를 공격하였다.

16세기는 중종반정을 기점으로 유교적 원칙에 입각한 정치를 실현시키려 노력하였다. 연산군의 폐정을 개혁하는 것은 물론, 건국으로부터 기득권을 누리며 귀족화한 훈구파를 척결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중종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쪽은 공신으로 책봉된 세력이었다. 공신 가운데에 훈구적 기반을 가진 자는 삼분의 일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門地가 불투명하거나 훈구파와 친척으로 연결되는 정도였다.

왕위에 오른 중종은 성종시대에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한 도학정치를 하고자 사림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포진 시켰고 그 대표적 인물이 조광조였다. 지식의 재현이란 목표를 내걸어 도학정치를 표방하던 조광조의 정치이념은 중종의 정치적 욕구와 일치하였던 것이다. 반정직후에 추진되었어야 할 폐정의 개혁과 새로운 정치 이념의 제시가 그때서야 자리 잡게 된 것이었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파, 즉 도학과는 문장을 중시하던 훈구파와 이념 투쟁과 정쟁을 하기 시작하였다. 충암은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도학과에 속하였다.

특히 성리학의 이념적 기반에 입각하여 초기 신진 사림에 비해 중종 초 조광조를 정점으로 한 신진사림은 그 역사적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즉 堯舜君民이라는 정치 이상인 至治를 표방하고 그 실현의 방법으로 절대적 도학주의를 관철시키려 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왕조정치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관심이 있었고, 재야에서 성리학을 공부했다는 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사고와 행위의 동질적 도덕성을 공유하였던 파당적 성격을 띤 집단 이었다³⁷⁾. 따라서 훈구파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신진사림과 기성의 훈구세력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림파는 왕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성리학적 이념을 정치에 실현하려

37) 金鍾振, 「16世紀 士林派 文學의 研究」-己卯士林을 중심으로- 성균관대박사논문, 1991.

고 고심했고 孔·孟에 기반으로 王道政治를 구현하려고 시도하였다. 왕도주의에 입각한 정치이념을 ‘至治主義’ 또는 ‘道學政治’라고도 한다. ‘왕과 관료들이 유학을 익혀 몸소 실천하고, 유교적 가치를 정치에 적용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치주의에 따르면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핵심인 군주가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군주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정치체제가 설 자리가 없고 정치적 교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람의 의미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단련과 덕성함양에 힘쓰며 일상의 사회생활과 정치현실에서 古道에 나타난 의리의 실천과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의미를 가졌다. 같은 문사라도 과거 응시를 위해 진부하게 경전의 구절이나 암송하고 화려한 시구와 문체의 사장에 힘쓰는 무리는 더 이상 사람의 범주에 들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利祿을 탐내는 심성이 바르지 못한 소인배로 간주되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정책 결정의 기준이나 정국 운영의 방식이 종전과 크게 달라졌다. 현실론을 앞세운 패도적인 부국강병보다는 의리·명분을 바탕으로 한 인심수습과 안정을 우선하며 소수권력집단에 따른 정책 결정보다는 가능한 지배층 전체가 참여한 토론에서 도출된 공론에 따른 결정과 정국의 운용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논쟁은 사장과가 문장 곳곳에 도학적 이념, 즉 철학을 가미하는 계기가 되어 사실상의 道文一致를 이룩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물론 명분과 논의를 높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결속하게 되는 朋黨의 형성이 뒤따르게 되었다. 변연히 자기 봉당에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이 선택한 것이 바로 봉당정치였다.

젊은 개혁세력은 원칙에 집착하여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함으로써 수구세력의 저항을 불렀다. 종종 또한 급진적 개혁에 염증을 느끼는 한편 사람의 권력화에 대한 불안이 점점 깊어져 결국 조광조 일파를 숙청하고 말았다. 이것이 이른바 己卯士禍이다. 기묘사화는 조선 초기부터 지배세력을 형성해 온 훈구파와 새로이 정계에 진출하려는 사림세력의 갈등과 대립이 표출된 사건이다. 이들 양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은 기묘사화의 요인이 되었고, 기묘사화 이후에는 理學이 침체하고 詞章이 다시 우세해 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충암의 시세계를 살피는데 그의 시론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 여기에서는 그의 시론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충암은 도학만을 중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도학과 함께 문학, 그 가운데서도 시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시론으로부터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김종직의 문인인 顔樂堂 金訥³⁸⁾의 시집에 붙인『顔樂堂詩集跋』은 충암의 시론을 담은 글로 주목할 만하다. 그의 시론은 동양의 전통적인 시관, 즉 공자나 주자의 시관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는 시가 성정이 발현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도덕적으로 교화되어 성정의 본연을 잃지 않았던 上世人의 시를 예찬하였다. 그는 시는 사람을 興起시키기도 하고 諷刺하기도 하며 찬미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문학론과 심미이상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시는 性情이다. 성정이 발하여 소리가 되나니, 어찌 화려한 수식으로 말을 충족한 것을 취하겠는가. 도덕이 무너지면서 성정이 괴리되었고 文辭가 뛰어나게 되면서 올바른 고리가 희미해졌다. 그 쪽으로 쏠린 이래 음란하고 변잡해져서 신기하면 할수록 大樸은 쇠잔해졌다. 한결같이 점점 낮아져서 음란 질탕함이 어지러워져 기이하고 새롭게 할수록 순박함이 떨어졌다. 아, 이것이 바로(선현의) 세상 이치를 관찰할 수 있다 함이다. ... 그러므로 詩道란 사람을 感興 시킬 수 있고, 풍자할 수 있으며, 자극할 수도 있으며, 칭송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저 그 공력이 안에서 돌아난 자는 정하지 않으면서도 정하고 깊지 않으면서도 깊어 애써 힘을 빌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³⁹⁾

그의 문학론의 시작은 ‘시는 성정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성정수양이 중요하다는 修身論으로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것이다. 性情論이라 할 수 있는 그의 문학론은 순수한 인간의 성정을 인위적 수식 없이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는 『顔樂堂詩集跋』의 첫 문장에서 제기한 ‘시는 성정’이라는 명제와 이어지는 것이다. 즉 마음속의 어떤 사상이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수양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쓰는 시는 좋은 작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성정은 인간이 천성적으로 부여받은 선하고 순

38) 金訥(1448-?)은 字가 君節, 號가 安樂堂이며 金宗直의 文人이다. 成宗朝인 1468년에 진사시에 壯元하였고 1486년에는 侍講官, 工曹參議 등을 歷任함.

39) 金淨, 『冲庵集』, 『顔樂堂詩集跋』, 『한국문집총간』23, 민족문화추진회, 1998, 183면. 詩者 性情也 性情發而爲聲 鳥取華采藻繪之足言也. 自道德喪而性情離. 文辭勝而正聲微 靡然趨降 淫泆繁亂 愈奇愈新而大樸殘矣. 嗚呼斯可以觀世矣... 故詩之道 可以興人 可以諷人 可以刺人 可以頌人. 夫功出於內者 不精而精 不深而深 不暇爲力焉者也, 이하 충암 시문의 출처는 제목과 이 책의 면수만을 밝히기로 한다.

수한 인격적인 바탕이며, 여기에서 발현된 시라야만 참다운 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왜곡된 정서의 분석에서 벗어나 인간의 진실한 감정의 표현으로 돌리고자 한 것이다. 문학은 온통 타락하고 혼탁한 세태를 자각하여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에서 자각된 것⁴⁰⁾이라기 보다는 그것에 나아가기 이전단계인 성정의 수양과 그것의 문학적 표출에 치중해 있는 것이다. 시인들이 자못 경박하다는 세상의 말은 시가 경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정이 변하여 그럴 뿐이라는 말⁴¹⁾은 그의 修養論的 文學論을 잘 드러내준다. “옛 시대에는 사람들이 교화에 감복되어 마음의 덕이 상스럽지 않았으니 시가 처음부터 시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거나 읊조리는 여운이 자연스러운 소리가 있어 悠長하면서도 간결하여... 음률에 울리게 되면 사당과 신전에 아뢰어 유명이 감동”할 수 있는 시, 이른바 꾸미고 채색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순박한 시, 그것이 시 본연의 文質이 빈빈한 시임을 말하고 있다. 더욱 성현의 시관으로 발문을 총결한 사상적 기저에는 “도학을 숭상해 인심을 바르게 하고, 성현을 본받아 지치를 일으키고자 한 조광조의 至治論과 一脈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그의 문학관은 비단 시뿐만 아니라, 論事의 奏疏나 사교의 왕복 서찰에서도 유가의 名分論的 正論으로 일관⁴²⁾되어 있다.

또 그는 ‘性を 순수하고 지극히 선하여 만 가지 이치가 다 구비되어 있는 본원적인 것으로 보았고, 情은 사물에 感興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선악이 여기에서 나누어진다⁴³⁾’고 주희의 생각과 같이 하였다. 인간의 진실한 감정 표현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심성을 다스린 후에야 시다운 시가 나올 수 있다는 수양론적인 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性情修養이 중요하다는 修身論으로 金訥의 학문적 성과와 자신의 사상적 기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순수한 인간의 성정을 인위적인 수식 없이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는 순수한 인간의 성정을 인위적인 수식이 없이 자연스럽게 표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0) 金種振, 「冲庵 金淨의 文學世界」, 성균관대 대학원, 1985, 37면.

41) 「顔樂堂詩集跋」, 世言詩人類多輕薄 直古今詩有異 非詩能爲輕薄 性情之變然耳, 183면.

42) 李鍾燦, 「冲庵의 詩文學」, 『淸大漢林』第4集, 1989, 35면.

43) 朱熹, 『詩經集傳序』, 朱子曰 其未惑也 純粹至善 萬理具焉 所謂性也 惑於物而動 則性之欲出焉 而善惡於是乎分矣.

우리나라는 또한 변하고 변한 가운데서 다시 변하여, 배우는 자가 대개 성정의 근본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문자의 위에서 찾으며 자득의 오묘함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남이 노래한 찌꺼기를 주워 모으며 蕭散精妙로 취향을 삼지 않고 옛사람에 기대어 답습하여 스스로를 뽐내니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더욱 허비되고 도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⁴⁴⁾

이는 성정에 바탕을 두고 시를 쓰면 모방하지 않은 독창적인 시를 쓰는데 가장 중요하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詞章學이 만연하던 조선전기에 수식을 일삼는 풍조에 반대하며 내실 있는 문학을 주창하면서 平澹의 미를 표준으로 삼았다. 그의 시에는 성정이 유로되어 진솔한 감정을 표출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의 시는 진솔한 성정, 즉 내실 있는 평담한 풍격이 구현되어 있다. 在職時에 지은 시거나 隱居時에 지은 시를 막론하고 그의 시에는 도학적인 사유가 반영되어 있다. 또 성리학에 기반 한 心性修養과 자신의 도학적 사유를 시로 형상화 하였으며 자연을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理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경물의 이미지를 자신의 내면 수양에 유익하게 수용하였던 것이다.⁴⁵⁾ 이는 利慾적인 현실 속에서 살지만 마음은 항상 자연 속에서 자기 수양이라는 내적 지향에 두었음을 의미한다.

충암은 ‘성정을 잘 표출하고 있는 시는 『詩經』이고, 唐詩가 변화하여 복고에는 미흡하지만 詩經 三百篇의 남는 소리와 뜻이 있다고 하며 긍정할 만한 시’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시가 되고 시는 인간의 진정한 생각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그는 宋詩는 성정을 변화시키는 바의 것은 버려두고 재주와 문자만을 가지고 시를 짓는 기교위주의 시라고 폄하하였다. 또한 이를 배운 자는 더욱 괴벽하고 비루하게 되어 변한 것 중에서도 변한 것이다⁴⁶⁾고 하며 부정적으로 여겼다.

44) 「顏樂堂詩集跋」, 東方 又變變之變 學者 率不求之於性情之本 而反尋之於文字之上 不涵咏於自得地妙 而反掇拾於糟粕之餘 不以蕭散精妙 爲趣 而以憑陵掩襲自銜 爲力益費而爲道益遠, 184면.

45) 林采明, 「冲庵 金淨의 詩世界 研究」, 단국대 대학원, 1997.

46) 「顏樂堂詩集跋」, 李唐詩道大盛 李杜 得比興之體 然要其歸 諸人所變特在於風花雪月之間 復古則未聞也 然而隨其所變 皆流出性情 往往殆亦精深悠遠之可言而猶有三百篇之遺意焉 自宋黃巢以來 始並與其所變性情者而遺之 一歸之於才學文字以爲之 得一字以爲巧 使一事以爲能 直欲躡躡古人 學之者 尤乖僻凡鄙 此變中之變, 185면.

그는 문학행위와 표현내용이 성리학적 道에 얼마나 근접하는가하는 말하고 있다. 시가 창작되기 시작한 이래 詩道는 점점 墮落一路를 걷게 되었는데 제일 큰 요인은 인위적인 것의 작용이라는 논리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문학론에서 널리 수용되었던 尊古卑今の 태도에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다. 詩道가 옛날과는 달리 점점 성정의 자연스러움에서 멀어지는 구체적인 실례를 성정에서 구하지 않고 도리어 문자에서 찾는 다⁴⁷⁾는 것이다. 이것은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정수양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문자의 공교로움, 즉 형식적인 技巧에만 치중하는 데에서 비롯하는 폐단을 말하고 있다.

충암의 시론은 그의 시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긴요한 단서로 『詩經』풍의 시와 唐詩風의 시로 대별할 수 있다. 『詩經』풍의 시는 성정의 本然을 드러낸 시이고 당시풍의 시는 성정의 變을 표출한 시이다. 따라서 전자는 내용이 유가의 도덕적 규범에 접근한 시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러한 규범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성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출한 시를 의미한다. 특히 성정의 본연을 표출한 시들은 보다 자연스럽게 표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충암이 시를 도덕적 정신경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갈래로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문필과 오래 소원하였더니 고상한 雅趣가 사라지고 眞精이 날로 덜어졌다. 슬픈 마음으로 시를 지어 스스로를 허물다”고 한 것도 이러한 관점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⁸⁾ 결국 충암은 시의 창작을 통해서도 심성을 陶冶하는 도학자의 태도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⁴⁹⁾이다.

47) 『顏樂堂詩集跋』, 學者率不求之於性情之本 而反尋之於文字之上. 183~184면.

48) 丙寅臘, 沈抱採薪 端憂萬緒 與文筆久疎 高趣消埋 眞精日耗 悵然賦以自讐云, 100면.

49) 유호진, 『韓國 漢詩의 人生 理想』, 태학사, 2006, 272면.

Ⅲ. 冲庵의 意識의 軌跡

앞의 연구사검토를 하면서 보았듯이 金基東은 충암의 생애를 成長學習期, 淸宦官僚期, 陳啓遊歷期, 至治現實期, 懷憶自嘆期の 다섯 시기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는데⁵⁰⁾ 이처럼 충암의 생애를 몇 시기로 구분하여 그의 시세계를 살피는 것은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충암의 생애를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儒學의 修學

이 시기는 충암이 22세에 文科 別試 壯元으로 급제하여 벼슬에 나가기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충암의 시문 중에서 이 시기의 것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연보에 의하면 그의 나이 2살 때 공부를 시작하여 9살 때에는 四書에 통달하였고 左傳을 공부하였다. 남다른 호심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놀래게 하였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몹시 슬퍼하며 3년을 죽만 먹고 지냈다고 한다.⁵¹⁾ 일찍부터 유학에 潛心하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말일 터이다.

충암은 처음부터 유학을 공부했다고 하지만 어려서부터 시에 매우 뛰어난 자질을 보여주었다. 그가 6세 때 집안에 모란이 활짝 피었다. 아버지가 그것을 놓고 시를 지어보라고 하자 충암은 즉석에서 시를 한 수 지었다.

洛陽多甲第	낙양에 뛰어난 집 많지만
姚魏鬪芳菲	요씨 위씨가 향기를 다투네
色借楊妃貌	미색은 양귀비 모습을 빌고
香分韓壽衣	향기는 한수의 옷 향기를 나누네.

50) 金基東, 「冲庵 金淨의 流配文學考」, 경희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3.

51) 「年譜」, 231~232면.

翠凝烟乍暖 저녁 기운 어리니 연기가 따뜻하고
 紅潤露初晞 붉은 해가 떠오르니 이슬이 막 말랐다
 莫倚春長在 봄이 길다 믿지 말지니
 明朝事已非⁵²⁾ 내일 아침이면 달라지네

이 시는 앞 네 구절은 典據가 많아서 상투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후반부 4구에서는 매우 빼어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저녁 기운이 내리면서 여기저기에서 피어오르는 저녁연기를 따뜻하다고 표현하는 것이나 해가 떠오르면서 이슬이 마르는 것을 표현한 것은 실로 6살 아이가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시이다.

그런데 이 시를 본 충암의 아버지는 “식귀가 맑으면서도 신이하며 빼어나면서도 슬픈 느낌이 있다.”고 하면서 “틀림없이 그의 뜻을 펼치고 천수를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⁵³⁾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시를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짐치는 詩識인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의 부친이 아들의 시에서 비극적인 전조를 느꼈다는 것이다. 이는 충암의 시가 가지는 풍부한 애상적 정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이 애상적 정조야말로 송시와 대비되는 당시의 구조적 감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는 충암의 시가 당시적 풍모가 있다는 後評의 싹을 이미 어려서부터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⁴⁾ 실제로 충암의 시는 풍부한 애상적 서정성을 가지고 있다.

스무 살에는 「十一箴」을 써서 학문하는 태도와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다.

대저 날개가 돌아 하늘에 오르는 것은 응용의 신이함이고, 얼룩무늬로 산림에 내닫는 것은 표범의 신령함이고, 조용하면서 날로 빛나는 것은 군자의 도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아침

52) 「年譜」, 231면.

53) 위와 같은 곳. 判書公大加驚異 至末句不悅曰 句法清而神秀而哀 必不得行其志享其壽 然昌大吾門死而留名者必此兒也.

54) 許筠, 「蓀谷集序」, “住在弘正間 忘軒李胃之 始學唐詩 沉着奇麗 而冲庵金文簡公 繼起爲韋錢之音 二公足稱一班”

魚叔權, 『稗官雜記』, “蓋己卯年間 訥齋·冲庵諸公 詩尙盛唐 文尙西京”

洪萬宗, 『詩評補遺』上篇, “金冲庵淨 文章精深灑灑 先輩稱爲 文追西漢 詩學盛唐”

尹根壽, 『月汀漫筆』, “冲庵德梁之詩工 其集俱在夫人 得見之 固是唐調”

부터 저녁까지 게으르지 않으며 자신을 닦는데 힘을 쓰며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알고, 알면 반드시 고치며 고치는 것은 반드시 빠르게 한다. 그러므로 옥돌처럼 홀처럼 아름다운 명성과 아름다운 명망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대개 군자는 동쪽 모퉁이에서 잃으면 서쪽 모퉁이에서 거두는 것이니 오래 되어도 나태하지 않는 것이 귀한 것이다.⁵⁵⁾

‘箴’이라고 하는 글이 원래 삶의 경계를 밝히는 것으로 여기에도 경세에 뜻을 두었거나 형이상학에 잠심하여 공부하고 그에 따라 깊은 학문적인 축적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단히 노력’하고자 하는 자세를 잘 드러내고 있다. 「십일잠」은 言箴, 行箴, 志箴 勇箴, 慮箴, 逸樂箴, 憂懼箴, 欲箴, 容儀箴, 忿恨箴, 好惡箴이다. 이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십일잠’은 유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태도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서 그중 하나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개 맹자는 말뜻을 아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자공은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을 탄식하였으니 이는 옛 성현들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함부로 농담하기를 좋아하고 침묵하기를 꺼린다. 마음에 주인 되는 것이 없으니 말을 함에 가리는 것이 없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말 잘하는 것을 숭상한다. 성내고 원망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아끼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도리에 어긋나고 오만한 것들이 어지럽게 범도 없이 쏟아져 나오니 몸을 망치는 것이 많다.⁵⁶⁾

이것은 ‘언잠’의 序文에 해당하는 글의 일부분이다.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1개의 ‘잠’은 모두가 이렇게 유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실천적인 다짐으로 이루어져 있다.⁵⁷⁾

그의 연보에 따르면 그가 도학에 침잠하기 시작한 것은 14세 경부터였다.⁵⁸⁾ 그는 연산조의 폐정 이후 士林育成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정계에 발을 딛

55) 「十一箴序」, 夫生翼而升天者 應龍之神也 成文而出山者 玄豹之靈也 闇然而日章者 君子之道也 是以君子夙夜匪懈 敏於修己 有遇未嘗不知 知之未嘗不改 改之未嘗不速 故如圭如璋 令聞令望 沒世不忘也.....蓋 君子失之東隅 收之桑榆 貴於悠久而不怠也, 218면.

56) 위의 글, 蓋孟氏以知言爲貴 而子貢發嘆於駟不及舌 古者聖賢之重其言也 世之愚人 率戲謔浪 而威憚恬默 心無所主 而言無所擇 隨口遷就 而辨給是尙 不惟其忿恨喜樂窮威驕盈憎惡愛悅 而平居悖傲者 亦紛然無紀 而禍身多矣, 219면.

57) 「十一箴」은 각 잠의 서문은 온전하게 남아 있지만 정작 ‘箴’에 해당하는 율문은 다 남아 있지는 않다.

58) 文集, 231~252면 참조, 이하 傳記의 내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年譜를 참조한 것임.

게 된다. 일찍이 佔畢齋의 문인으로서 과명을 멀리하고 직산에 은거하여 南孝溫 · 洪裕孫 등과 죽림의 벗이 되어 문명을 떨쳤던 辛安亭에게서 수학했으며⁵⁹⁾ 스물한 살 때 九屏山 남쪽 물가에 있는 孤峰精舍에서 崔壽峽과 具壽福등과 성현의 미묘한 뜻을 같이 토론하고 함양하느라 식음을 잃어버릴 정도였다고 한다.⁶⁰⁾ 바로 이곳이 三賢亭이 세워졌던 곳이다. 학문을 연마했으며 잠언을 단순한 글로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실천을 기약하면서 그 실천을 증명한 셈이니 언행일치라 말할 수 있다.

충암은 그의 학문, 인생에 있어 도학과 문학을 같이 중요시 하였다. 열아홉 살 되던 1504년 (연산군 10년) 生員試에 합격한 충암은 三角山에 있는 淸涼寺에서 독서에 몰두하였다.⁶¹⁾ 이때가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향하는 정치가의 수련과정을 겪게 되었으며, 사상적으로도 확고하게 방향이 설정되었다.

충암은 도학을 숭상해 인심을 바르게 하고 시뿐만 아니라 論事의 奏疏나 사교의 왕복 서찰에서도 유가의 명분론적 정론으로 일관해 있으니 그야말로 문인이기 이전에 유학자였던 것이다.⁶²⁾

密雲含雨氣 뭉뭉한 구름은 비 기운을 머금고
 殘日暈虹光 지는 해는 무지개빛으로 둘러싸였네
 寒暑多遷易 추위 더위가 너무 많이 바뀌니
 生黎怨彼蒼⁶³⁾ 백성들 푸른 하늘을 원망하네

이 시는 충암이 19세 때에 쓴 시로 상당한 문학적 깊이가 느껴진다. 첫째와 둘째 구절은 눈에 보이는 풍경을 그림을 그리듯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인은 갑작스럽게 추위 더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비약이 얼핏 생똥맞다는

59) 辛安亭은 辛永禧(1454-1511)로 字는 德優, 佔畢齋의 門人, 『安亭先生實記』에 의하면 燕山3년 “閑居教授 金淨 · 李苻 · 蘇世讓 · 世讓 · 張應斗 · 及辛世瑚 · 世璉 · 熙貞 · 億齡 · 講學焉”이라 하였고 中宗 3年 “夏與 金淨遊俗離山靑龍寺賦詩”한 것을 보면 安亭이 58세로 죽기 전까지 師弟關係를 맺었던 것으로 보이며, 冲庵集에 安亭과 관련한 詩 4편이 전해지고 있다.

60) 『年譜』, 峯在九屏山 南衆水涯處 先生因以爲號 時與崔具諸公數三同志之士 討論聖賢微旨, 233면.

61) 『年譜』19세조. 『冲庵集』 『韓國文集叢刊』23집, 민족문화추진회, 1998, 232면. (이하 출전은 글의 제목과 이 책의 면수만 밝히기로 한다.)

62) 李鍾燦, 「冲庵의 詩文學」, 『淸大漢林』第4集, 1989, 35면.

63) 『陽智道中』, 97면.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 간격을 메워주는 것은 바로 이 시의 제목 「양지도중」 즉 ‘양지 가는 도중’이다. ‘陽智’와 ‘陽地’의 음이 같은 것을 이용하여 간단히 추위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이 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 시의 묘미는 마지막 구절에 있다. 즉 지금까지 단순히 풍경을 읊던 서경적인 느낌이 강하던 시에서 ‘백성들이 푸른 하늘을 원망’한다고 하는 데에 와서는 시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이다. 이제 이 시는 서경적인 느낌은 사라지고 백성을 걱정하는 유학자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위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충암이 공부한 유학은 백성들이 하늘을 원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유학이었고, 따라서 충암은 벼슬에 나가 백성들의 원망을 풀어주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風軒幽鳥噪 바람 부는 추녀에 새소리 그윽하고
 孤巷疎麻老 외로운 골목에 성긴 삼대가 늙어간다
 獨愛從南山 홀로 종남산을 사랑하니
 開窓朝暮好⁶⁴⁾ 창문을 열면 아침저녁 모두 좋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지은 이 시는 「病中」이라는 제목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를 풍긴다. 그윽한 새소리를 듣고 삼대가 늙어가는 풍경을 보면서 창문을 열고 바깥풍경을 즐기는 모습은 20세 젊은 환자의 모습이 아니다. 얼핏 보면 오히려 은거하여 노년의 삶을 편안히 누리는 모습이라고 하는 편이 낫다. 어떻게 보면 耄老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노숙함은 그의 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충암은 19세에 인사는 ‘움직이면서 고요하지 않고 변하면서 일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窮함과 通함이 성공과 실패 존속과 멸망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는 노숙한 깨달음을 설파하였다.⁶⁵⁾

64) 「病中」, 97면.

65) 「贈志悅上人序」, 184~185면. 人事變焉 夫運而不靜 推變而不可常者 其惟人事也與! 惟其運而不靜也 故推變 推變而不可常也故決然之頃 有窮通成毀存亡之一 固將紛綸膠輻 一往一來 或會或離者

그런데 이 시에서 주목할 것은 從南山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다. 종남산은 은거하는 산이 아니다. 서울에 있는 산이고 벼슬을 회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산이다. 이렇게 본다면 종남산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은거한 노인의 희망이 아니라 역시 경세에 뜻을 둔 젊은이의 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창문을 열면 아침저녁 할 것 없이 모두 좋다고 고백한다.

雪下北山暝 눈이 내리니 북산이 어두워지고
 烟生孤店迢 안개가 피어오르니 외딴 주점은 멀구나
 長安千里餘 장안은 천리나 남았는데
 歸鳥天邊影⁶⁶⁾ 둥지로 돌아가는 새의 그림자는 하늘가에 보이네

鎭川은 충청북도 북서부에 있는 읍 소재지로 충암이 甲子年 봄⁶⁷⁾에 禮曹의 시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가는 도중에 쓴 시이다. 눈이 내리고 점점 어둠이 드리우고 있다. 안개는 자욱한데 쉴 곳은 아득하기만 하다. ‘長安’에 가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쉴 곳이 없다. 이 시에서 ‘장안’은 서울을 의미하지만 구체적인地名으로 보지 않아도 좋다. 그것은 유학자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점으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둥지로 돌아가는 새의 그림자가 하염없이 부러운 나그네의 마음을 잘 표현하였다. 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 가야할 곳이 아직도 멀기만 하고 가는 길에 어둠이 내리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즉 눈이 내리고 안개가 가득하여 시야가 보이지 않는 길을 터벅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의 화자는 장안을 향하여 가면서 시선은 둥지로 돌아가는 새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는 방향과 시선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배운 학문을 실천하고자 과거를 보러 가는 중에도 그의 마음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 있다. 시적 분위기가 밝기보다는 외롭고 막연한 느낌을 주는 것은 이와 같은 시인의 정신적 갈등에서 기인하

66) 「鎭川道中」, 97면.

67) 甲子春, 將赴禮闈如京, 19세, 1504년

는 것으로 보인다.

충암 시에는 대체로 산과 눈, 안개라는 의경이 자주 등장하여 그의 정신적 지향을 표출하고 있다. 그의 정치적 역정을 고려할 때 그가 지향하는 정신은 온갖 정치적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것은 대의를 위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義理精神이라고 말할 수 있다.

松懼霜下後 서리 내린 후에 소나무는 여위고
鶴竦露清餘 이슬 맑아진 뒤에 학은 꼳꼳하네
顏貌雖凋悴 얼굴도 모습도 비록 초췌하나
肝腸更洞虛⁶⁸⁾ 마음은 더욱 텅 비었네

21세 때 지은 이 시는 제목이 내용과는 썩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 「病中」이다. ‘서리가 내린 뒤에 소나무가 여위고, 이슬이 맑게 된 뒤에 학이 꼳꼳하다’는 말은 병을 앓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환자의 심리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마치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돌연히 등장하는 소나무와 학은 단순히 그의 주변의 자연물을 묘사한 것이 아니다. 이 淸澄한 것들의 이미지는 병을 앓고 있는 그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소나무이며 학이 되고 싶어 한다. 학은 이슬만 먹어서 겉모습은 파리하지만 마음속은 잡스런 것들을 먹지 않아 깨끗하고 텅 비었다. 여기서의 松과 鶴은 바로 자신이 추구한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의 정신은 더욱더 깨끗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뜻한다. 소나무와 학을 통하여 겉모습은 비록 초라하지만 마음속은 울곧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시인은 소나무를 통해서 外面의 모습을, 학을 통해서 內面의 고고한 선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형상에 내포된 의미는 ‘마음이 더욱 텅 비었다’는 진술은 어떠한 세속적 욕망이나 기심이 없음을 시사한다. 자신의 고결한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청정한 사물의 이미지를 사용했던 것이다. 특히 ‘학’은 ‘氷玉’과 함께 자주 출현하는 이미지로 자신이나 이상적인 인물의 청정한 내면을 상징한다. 淸澄한 내면에 대

68) 「病中」, 99면.

한 지향은 도의 體得에 대한 지향을 의미⁶⁹⁾한다. 충암이 從南山을 사랑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세속적인 출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長安이 천리나 남았다고 탄식을 하는 것도 이러한 청정한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중에 나온 것이다.

淒淒微露被皐蘭	서늘한 작은 이슬 언덕 위 난초를 덮었는데
一枕先驚節序闌	자다가 놀라 깨니 계절이 깊었네
滿壁蟲音悲永夜	온 벽에 벌레 소리 긴 밤을 슬퍼하고
孤村砧響怨天寒	외로운 마을 다듬이 소리 찬 날씨를 원망하네
病來俗事忘懷易	병이 들어 속세의 일은 잊기 쉽고
睡去清詩琢字難	잠에서 깨어나 맑은 시귀는 다듬기가 어렵네
獨臥月明空玉裏	달 밝은 빈집에 홀로 누워있으니
草螢無數散簷端 ⁷⁰⁾	반딧불 무수히 처마 밑에 흩어지네

이슬이 흙뻑 내리고 벌레들이 밤늦게까지 울어댄다. ‘丙寅年 가을’이라는 이 시에서 그려내는 풍경은 꼭 병인년이 아니라도 좋다. 이 시에서 주목할 것은 “병이 드니 속세의 일은 잊기 쉽고 / 잠이 깨니 맑은 시귀는 다듬기 어렵네”라고 하는 구절이다. 이 구절을 역으로 만들어보면 ‘건강할 때는 속세의 일을 하고, 잠에서 깨어나 맑은 시가 쓰이지 않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병이 든 때는 은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잠이 깬 때는 비몽사몽으로 정신이 혼돈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병이 들었을 때야말로 정신이 맑은 때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의 시 ‘병중’에 대입해보면 위의 시에서 앞의 두 구는 시인이 보는 풍경이자 이 시의 분위기이다. 병이 들었을 때를 여윈 소나무와 곳곳한 학으로 분위기를 잡는 것은 병으로 고통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구하는 태도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이 앓고 있는 병은 육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지향하는 꿈을 달성하기 위한 정신적인 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용모도 초췌하지만 마음은 깨끗해지며(洞虛), 그런 상태에서 반딧불과 같은 맑고

69) 유호진, 『韓國 漢詩의 人生 理想』, 태학사, 2006, 287면.

70) 「丙寅秋」, 99면.

순수한 청정의 이미지를 가져와 무수히 흠어지는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將星光彩映文星	장군별의 광채가 문곡성을 비추니
天遣昌辰嶽降靈	하늘이 밝은 별을 보내고 큰 산이 영기를 내렸네
塞外長城雄北漠	변방의 장성으로 북쪽 사막에서 빼어났고
朝中砥柱峙東溟	조정 기둥으로 동쪽 바다에 우뚝하였네
壯魂縱與乾坤化	장한 혼은 비록 천지와 하나 되었지만
高節應傳鼓鼎銘	높은 절의는 마땅히 북과 솥에 새겨져 전해지리
脩短人生終古事	인생의 길고 짧음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나
劍懸殘帳舊堂局 ⁷¹⁾	칼은 헤진 장막에 걸려 있고 옛집에는 빗장이 걸렸네

충암은 武將 李季소을 아낌없이 기리고 있다. 그는 무장이었지만 문에도 밝은, 그야말로 文武兼全의 인재였다. 밖으로 나가서는 뛰어난 장수였으며 조정에 들어와서는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다. “장군별의 광채가 문곡성을 비춘다”고 한 것은 이런 의미일 것이다. 그런 그가 이제 천지와 하나가 되었다.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높은 절의는 결코 잊혀지지 않아야 한다.

아직 벼슬에 나가지도 못한 일개의 선비인 충암이 이미 문무를 겸비한 재상을 지낸 사람의 挽詩를 쓰는 것 자체가 주제 넘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젊은 충암은 개의치 않고 ‘그가 쓰던 칼은 헤진 장막에 걸려 있고 그가 살아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그의 옛 집에는 찾는 사람이 없이 빗장이 걸렸다’고 탄식을 하고 있다. 그가 살아있을 적에 무장으로 화려했던 전적이 죽음으로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헤진 장막에 걸려있는 칼을 통하여 인생의 길고 짧음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계동의 죽음을 통하여 종남산을 사랑하여 이계동의 뒤를 따르고자 했던 충암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이다.

71) 「挽李相季全代人作」, 98면. 이 시는 두 수로 되어있다. 참고로 다른 한 편의 원문도 여기에 실어둔다. 翻 摧霜鶴墮秋天 一夢功名五十年 延德驛驪嘶月下 失恩鸚鵡泣風前 南樓興散空清夜 綠野香飛鎖暮煙 惆悵帳頭懸 實劍笛聲高怨柳營邊.

遠峯天外翠眉浮 먼 봉우리가 하늘 끝에 푸른 눈썹처럼 떠 있고
 烟樹重重暗浦頭 이내 낀 나무 겹겹이 포구가 어둡네
 一雨滄江歸棹晚 비 내린 푸른 강에 느지막이 노 저어 돌아오니
 雁橫寒渚蓼花秋⁷²⁾ 여뀌꽃 핀 가을에 기러기 찬 물가로 비껴 나네

21세 늦가을에 여행을 하면서 자연 경물을 보고 일어나는 감흥을 쓴 시이다. 시인은 먼 하늘 끝에서부터 나무가 겹겹이 포구를 막고 늘어선 경치를 차근 차근 형상화하고 강위로 시선이 옮겨진다. 저녁이 내려앉는 강에는 노를 저으며 돌아오는 배가 있고 북쪽으로 돌아가려는 기러기 떼의 모습이 보인다. 시인은 물위를 날아가는 기러기의 모습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을 것이다. 시인은 북으로 돌아가는 기러기에서 집을 떠나 떠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냥 경물을 읊은 시 같지만 내면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의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다.

충암은 20세부터 유랑을 시작했다. 물론 이것은 강요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워했다. 이 시기뿐 아니라 벼슬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충암의 시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충암은 귀향하지 않았다. 마음은 자연에 두고 몸은 서울에 가서 벼슬을 하고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은 그의 젊은 날의 모습이었고 또 평생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2. 仕宦과 事親의 變奏

충암은 스물두 살 때(중종 2년) 春中別試인 甲科에 장원으로 급제⁷³⁾ 하여 그의 文名을 떨치고 탁월한 文才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애초에 과거에 그리 연연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의 명을 물리치지 못한 것뿐이었다. 급제 후 그는

72) 『江興』, 99면.

73) 『國朝榜目』卷6 ; 中宗時 生員金淨 都事申氷洪 生員魚氷瘡

成均館 典籍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請復故妃愼氏疏」를 올리기 전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於穆聖王膺丕休	오오 훌륭한 성왕께서 나타나시니
玄機流盪正陶甄	현묘한 기미가 움직여 세상을 교화하시도다
炳煥斯文日月懸	사문이 빛이 나 해와 달처럼 걸려 있고
包羅草澤搜遺賢	시골 구석까지 두루 버려진 인재를 찾는구나
爰闢書堂選英材	이에 서당을 열어 영재를 뽑으니
煌煌奎壁儼群仙	빛나는 인재들이 신선들 같구나
	중 락
伊余樛散蒙主恩	나는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군은을 입어
竊吹玉堂同周旋	가만히 옥당에서 일하게 되었네
金闕瑤階拜辭罷	궁궐의 섬들에서 인사를 마치고
玉鞭龍騎去翩翩	옥 채찍을 들고 용을 타고 훨훨 날아가네
	중 락
時值窮冬惜短景	때는 한 겨울이라 짧은 해가 애석하고
日月逝矣催流年	해와 달이 시간을 재촉하며 흐르네
蘊藏經濟法純乾	경세제민의 뜻을 품고 천도를 본받으니
及時少壯須勉旃 ⁷⁴⁾	때에 맞게 젊은 시절 힘써야 하리
	하 락

충암이 23세 때의 작품이다. 총 43구에 이르는 꽤 긴 시인데 내용은 산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좋은 군주가 나타나 인재를 등용한다. 자신도 옥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스스로를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경세 즉 經世之民에 뜻을 두고 天道를 펼치고자 한다. 이상적인 군주를 만나 마음껏 이상을 실현해보겠다는 야망을 숨김없이 토로하고 있는 이 시에는 벼슬에 막 나갔을 때의 흥분과 열기가 느껴진다.

74) 「戊辰十一月朔 陛辭到書堂此友人韻」, 103면.

封拜皂囊近紫闈 벼슬을 제수 받아 궁궐 가까이에 나가
 堂堂孤標雪霜飛 당당히 우뚝 서니 눈서리가 날리네
 君恩自是收忠直 임금님의 은혜 이제부터 충직을 거두시리니
 鄉國那因任許歸⁷⁵⁾ 고향을 어찌 멋대로 돌아가리

이제 막 벼슬을 제수 받은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다. 눈발이 날리는 날씨에 당당하게 버티고 서 버티는 모습에서는 세상을 傲視하는 기상이 느껴진다. 이때 충암은 “임금님의 은혜 이제부터 충직을 거두시리”라고 하였다. 자신이 임금에게 충직으로 보답을 하겠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향에 어찌 멋대로 돌아가겠느냐”고 하여 귀향보다는 관직에 있으면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각오를 다졌다.

전 략

所以窮經謀道 경전을 궁구하고 도를 펼치려는 까닭은
 志回頽世 무너지는 세상을 회복하려는 것이고
 反撲追鴻荒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것

중 략

遂令臣等刮摩志業 마침내 신 등이 뜻과 학문을 연마하게 하시다
 三朔休暇來書堂 석 달의 휴가를 얻어 서당에 오니
 如彼建大廈 저처럼 큰 건물을 세우고
 須儲棟樑材 동량의 인재를 채워야 하리
 如臣者眞小材 신 같은 사람은 정말로 작은 재목이라
 雖不足振發爲國用 비록 나라의 쓰임으로는 부족하지만
 然當黽勉不已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리라
 少壯不勞力 젊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老大其如主恩何哉⁷⁶⁾ 늙어서 임금님 은혜를 어찌 갚을까

하 략

75) 「次友人韻」, 105면.
 76) 「次友人韻」, 105면.

위의 시와 같은 제목의 시에서 충암은 그의 이상을 매우 산문적이고 노골적으로 펼친다. 그는 경전을 공부하고 도를 펼치려는 목적이 혼란한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서 그는 매우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밝힌다. 큰 집을 짓고 인재를 채워야 하는 것이다. 젊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늙어서 임금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때 충암은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노력하여 임금의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였다.

이 무렵 충암이 쓴 글 중의 하나가 「答對馬島主書契」이다.⁷⁷⁾ 당시 대마도에서는 稅穀船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였고 조선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여 외교적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당시 충암은 29세로 奉常寺 僉正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이 글에서 “어찌 의리를 거스르며 스스로 헤아리지도 못하는 것이 이렇게 심한가” 또는 “귀도의 죄로도 마땅히 관계를 단절하고 용서하지 않으며 영원히 화평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감격하여 무릎을 꿇으며 죽을 때까지 보답을 도모하고 오로지 국가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더욱 경건함을 다하며 최선을 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대국의 너그러운 덕을 생각하지 않고 아랫사람으로서의 간절한 정성을 다하지 않고 약속을 위배”⁷⁸⁾하였다고 하는 등 외교문서로 보기 어려운 정도의 직설적인 언어로 對馬島主를 꾸짖고 있다. 이것은 당시 충암(을 비롯한 젊은 신진 학자들)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꼭 대마도와의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하된 자로서 바른 도리를 지키고자 血氣方壯한 태도를 지닌 그는 기묘사화로 인하여 곧 좌절을 당하였다.

冠蓋若雲浮	벼슬이란 뜬 구름 같은 것이지만
由來不暫休	이래로 잠시도 쉬지 못하누나
風煙連上國	바람을 맞으며 상국에 다녀도 오고
道里控南州	이리 저리 남쪽 고을 다스리려도 가네

77) 「答對馬島主書契」, 191면.

78) 위의 글. 「答對馬島主書契」, 191면. 頃者 貴道之人 興造鬱孽 自絶于天 以貴島之罪 固宜擯絶不赦 永斷和好 賴主上仁聖 念足下先世之舊好 舍垢棄瑕 既復通好 又賜恩數之半 誠大國之殊渥 而貴島之至幸也 足下如能自反 當感激隕越 沒齒圖報 一遵國家教條 益罄虔恪 以思自效.....

喬木空庭老 키가 큰 나무는 빈 뜰에서 늙어가고
 歸雲暮嶺愁 돌아가는 구름은 저녁 산마루에서 근심스럽네
 去鄉身已遠 이 몸 고향을 멀리 떠나
 吟望對窮秋⁷⁹⁾ 시를 읊조리며 늦가을을 마주하네

벼슬이 뜬 구름과 같다. 그러나 쉬지도 못 한다. 바람을 맞으며 上國에도 다녀오고 남쪽 이 고을 저 고을 옮겨 다니느라 바쁘다. 그러나 보람을 느끼지도 못한다. 뜬 구름 같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충암이 이 시를 쓴 것은 이제 막 벼슬에 나섰을 때였다. 그런데 벌써 뜬 구름 같다는 말을 한다. 그것은 지치주의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치려 했던 그의 뜻이 좌절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시인은 고향을 생각한다. 그곳은 키 큰 나무가 천천히 늙어가고 산마루에 구름이 걸려 있는 한가한 공간이다. 벼슬 하면서 이리 저리 돌아다니느라고 바빴던 것과 달리 여유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리운 고향이라도 가지는 못한다. 그저 시나 읊으면서 가을을 느낄 뿐이다. 벼슬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것을 늦가을을 마주한다고 말하고 있다.

賈子須時漢傅伊 가의는 때를 기다렸던 한의 부열과 이윤
 聖文宣室重英奇 성군 문제는 선실에서 인재를 중시하였다네.
 如何問得天人理 어찌하여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묻는단 말인가
 虛道從前意過之⁸⁰⁾ 헛되이 옛날에 뜻한 것이 지나쳤다 하네

강개한 어투가 느껴지는 이 시는 정치개혁에 힘을 쏟은 賈誼의 일을 제재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한 작품이다. 그의 젊음과 개혁의 외침이 헛되었다는 듯 말하고 있다. 가의는 前漢 文帝 때의 인물로 비판의식이 날카로운 수재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개혁의지를 불태웠지만, 시대에 맞지 않아 이상은 좌절되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 젊은 나이로 중용되어 정계의 제

79) 「龍仁」, 101면.
 80) 「賈生嘆」, 130면.

도와 관행을 일신하려다가 권신들의 중상모략을 받아 조정에서 쫓겨난 것이다. 조선왕조의 왕업이 훈구파로 말미암아 이미 반석위에 올랐는데 개혁을 외치다가 좌초한 자신의 처지를 완곡하게 은유하고 있다. 충암은 가의를 傳說과 伊尹에 견뎌줌으로써 재능과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다. 성군이라고 후대까지 칭송을 받는 文帝지만 가의에게 민생에 대해 묻지 않고 귀신의 일을 물음으로써 정치의 폐단을 일신하고자 하는 가의를 저버렸다. 문제는 가의를 중용하지는 못하였지만 가의의 죽음을 듣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였다. 역시 성군이랄 할 만하다. 이에 비하면 충암이 섬기던 임금도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⁸¹⁾

충암은 사림에 대한 중종의 태도에 실망을 하고 있었다. 중종은 겉으로 사림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사림의 개혁정책을 수용하거나 이들을 중용하지는 않았다.⁸²⁾ 이 시기 벌써 충암은 모시는 임금에 절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獨立閑愁倍黯然 홀로 서서 한가히 시름하니 슬픔이 배가되고
 思親長望白雲天 어머니 그리워 흰 구름 낀 하늘 멀리 바라보네
 心懸片月歸何日 마음에 조각달이 걸렸으니 돌아갈 날 언제인가
 家在三山別隔年⁸³⁾ 집은 삼산에 있는데 떠나온 지 한 해가 넘어가네

충암은 23세 때 조정에서 堂下官 文臣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庭試에서 장원하여 내외에 그의 文才를 떨쳤으며 관직도 兵曹佐郎에서 正郎으로 승진하고⁸⁴⁾ 그 해에 兵曹正郎이 되었다가 副校理로 옮겼다. 위의 시는 이 무렵에 쓴 것이다. 관직에 들어서자마자 고향을 그리는 것이다.

그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있다. 구름이 끼여 있는 하늘 끝 저 멀리에 계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느끼는 슬픔이다. 충암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여 어렸을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아버지를 15세 때

81) 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自註가 있다. 帝口久不見賈生 自謂過之 今不及也

82) 유희진, 앞의 책, 279~280면.

83) 『次茂沃然字韻』, 106면. 十首 中 첫째 首이다.

84) 『中宗實錄』권5, 3년3月 乙卯; 聚堂下官文臣干殿庭 命製李陵 送蘇子卿還漢七言排律三十韻 傳曰庭詩居首 正言金淨 加資其次

여윈 충암은 지극정성으로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였다. 그런 그가 지금은 벼슬에 올라 어머니와 떨어져 있다. 그는 하늘에 떠 있는 조각달을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워한다. 어머니가 계시는 집은 三山에 있는데 떠나온 지 벌써 한 해가 넘었다. 돌아갈 날이 언제인지 생각을 해보지만 기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달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걸려 있는 것이다. 충암은 벼슬을 시작하자마자 절망을 느끼고 망향을 노래한 것이다.

충암은 스물다섯 살 때(중종 5년)는 초야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홀어머니를 모시고자 한다는 귀향을 청하는 소를 올렸다.⁸⁵⁾ 이 상소에서 충암은 과부 모친이 궁벽한 시골에 사시는데 늙고 병이 들어 죽음에 임박하였다고 하면서 체직시켜주어 모친을 봉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충암은 고향인 충청도사로 부임하여 2년간의 외직생활을 하였다.

三春悲祖席 봄날 전송하는 자리에서 슬퍼하나니
 六載別神京 육 년 만에 서울을 떠난다
 他夕相逢處 다른 날 만날 때에는
 應知此日情⁸⁶⁾ 이날의 마음을 응당 알겠지

이 시는 ‘귀향’의 청이 받아들여져 충청도사로 서울을 떠날 때 지은 것이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여 내려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다. 물론 이 시가 이별시임을 고려한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귀향을 간절히 원하였고 이 희망이 받아들여 진 것임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의 희망이 단순히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 암시된다. 충암은 슬퍼하는 마음을 “다른 날 만날 때에는 / 이날의 마음을 응당 알” 것이라고 하여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피한다. 이것은 충암이 벼슬을 그만두려는 것이 단순히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

85) 「年譜」, 234면. 庚寅 上疏乞 歸養 疏略曰 臣一介賤儒 遭逢 聖明 致身 經幄 榮幸踰分 狗馬之懷 思效微忠 沒身不悔 弟念臣有寡母 窮居村野 年迫(桑)榆 疾病...

86) 「江頭留別京中親舊」, 110면.

다.

微雪輕輕落醉顏 작은 눈이 가벼이 취한 얼굴에 떨어지는데
風吹飛騎到三山 바람을 무릅쓰고 말을 달려 날듯이 삼산에 왔네
家園遙望依然見 고향집이 멀리 옛날처럼 보이니
門倚斜陽彩翠間⁸⁷⁾ 문은 지는 해의 푸른 빛깔 사이에 기대었네

이 무렵에 지은 이 시의 앞 두 구는 고향으로 달려가는 들뜬 마음과 속도감이 잘 나타나 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부는 날씨지만 시인은 말을 달려 고향으로 달려갔다. 앞에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면 뒤의 두 구절에서는 회화감을 느낄 수 있다. 멀리서 보이는 고향의 집은 늘 그리던 그대로 있고 눈발 너머 지는 해를 받으며 서 있는 집이 서서히 내리는 저녁 기운 속에 보인다.

이 해 여름과 가을에는 俗離山·淸風 寒碧樓 등지를 두루 유람하면서 자연에 심취한 시를 남겼다. 중앙에서 벼슬을 하고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득의의 시기였다.

盤辟*山川壯 굽이 친 산천은 장엄도 하여
乾坤茲境幽 천지가 여기에서 그윽해졌네
風生萬古穴 바람은 만고의 동굴에서 나오고
江撼五更樓 강물은 새벽의 누각을 흔들고 있네
虛枕宜淸夏 빈 베개는 시원한 여름에 어울리고
詩魂爽九秋 시혼은 가을에 상쾌하네
何因脫身**累 어찌하면 이 몸의 허물 벗어버리고
高臥寄滄洲⁸⁸⁾ 높이 누워 滄洲에 머물 수 있나

*은 『國朝詩刪』에는 ‘盤關’으로 되어 있다.

87) 「來三山道中作」, 99면. 이 시는 그가 22살 때 그러니까 충청도사가 되기 전에 쓴 것이다. 따라서 창작 연대상으로는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 맞지 않는다. 다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다.

88) 「淸風寒碧樓」, 111면.

**은 『국조시산』에는 ‘塵’으로 되어 있다.

후대의 시선집에 두루 선발되어 널리 알려진 시로 이 때 지은 것 중의 하나이다. 淸風은 충청도 제천에 있는 고을이다. 寒碧樓는 한강을 굽어보는 높은 석벽위에 자리하여 뒤로 금수산을 두르고 강 건너 백사장까지 바라 볼 수 있어 절경으로 이름난 곳이기도 하다. 충청도都事에 재직하였을 때 그는 업무의 여가를 이용해 청풍의 한벽루에 들렀다. 이 누각에서 하루 밤을 지새며 보고 느낀 정회를 노래한 것이다.

이 시에서 충암은 淸風의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서 현세를 잊고 自樂하고 싶은 심정을 간결하면서도 淸新하게 노래하고 있다. 누각이 위치한 자리는 구불 구불한 산천이 둘러싸고 있어 천지간의 그윽한 기운이 이곳에 다 모인듯하다. 천지가 一望无涯로 펼쳐지고 시원한 바람은 끝없는 만고의 굴에서 불어오듯 강물을 출렁이여 밤 누대를 흔들고 있다. 잠시 동안이나마 현세에 일탈할 수 없는 마음을 벗어나 대자연 속에 함은 느낀다. 고고하면서 雄壯하고 깨끗하면서 속되지 않은 淸新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의 기개가 아주 넓고 큼을 느끼게 한다.

이 시는 특히 豪壯 · 豪放하다 하여 稱道의 대상이 되었다. ‘風生萬古穴’은 金宗直이후 李胄 鄭希良 金淨에 이르는 당시의 ‘엄숙’이야 말로 한 시대의 풍상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⁸⁹⁾ 이에 許筠은 이 시를 ‘豪放自恣’⁹⁰⁾하다고 평하여 웅건한 豪氣를 지적하였다. 그의 의경이 압축되어 있는 ‘脫身累’를 孤淸으로 써서 자신의 몸을 얹어 맨 허물과 이를 탈피해 버리고 싶은 욕망을 매우 강하게 드러내었다. 관료로서의 생활이 자신의 굴레가 되었는데 이를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문혀 지내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자잘한 세부묘사를 하지 않고 전체의 경물을 간략히 요약하는 수법으로 작품의 문학성을 높이면서 그의 호방한 시적 풍모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⁹¹⁾ 이 시기는 충암이 득의한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전혀 구김이 없는 시를 많이 지었고 그의 시풍은 성당의 시풍을 따라 豪放飄逸한 기운이 있었다.⁹²⁾ 이 시기 충암은 시와

89) 閔丙秀, 『韓國漢詩大綱』, 태학사, 2013, 516면.

90) 許筠, 『國朝詩刪』, 권4

91) 金基東, 「冲庵金淨의 流配文學考」,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27면.

92) 尹根壽, 「月汀漫筆」, 安塘撰, 「己卯錄補遺」, 上卷등에 冲庵의 詩評이 보임.

문에 뛰어난 재질을 발휘하여 많은 찬탄을 받았으며, 나중에 시에 능한 문인 정치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江南殘夢晝厭厭*	강남의 남은 꿈 한낮에도 나른한데
愁逐年芳日日添	시름은 어여쁜 꽃 따라 나날이 더해가네
雙燕來時春欲暮	쌍쌍이 제비 날아와 봄이 저물려 하는데
杏花微雨下重簾 ⁹³⁾	살구꽃 가랑비에 겹발을 내리네

* 『國朝詩刪』에는 ‘慙慙’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봄날의 春興과 시름을 잘 표현한 충암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하다. 시인은 따스한 봄날 나른하게 낮잠을 자다가 깨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본다. 그러면서 다시 가버릴 봄을 생각하고 아쉬워하며 시름에 잠겨든다. 봄이 깊어 갈수록 마음이 허전해지고 근심을 지우려 문을 닫고 강남을 꿈꾼다. 봄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싫은 그의 마음이 드러나 있으며 저물어가는 화려한 봄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해 그것을 한 편의 시로 읊은 것이다.

이 시는 ‘雙燕, 杏花, 微雨, 重簾’과 같이 지극히 차분하면서도 온화한 색조를 띤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鄭玟은 16·17세기의 시의 특징을 감정의 과도한 분출과 절제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제어할 수 없는 낭만적 걱정을 노래하면서도 이를 무턱대고 발산하기보다는 미학적으로 억제 승화시킴으로써 높은 예술 성취를 나타내었다. 말하자면 이 시기는 漢詩의 言語美學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기였던 다고 말한 바 있는데⁹⁴⁾ 충암의 이 시는 이 시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발산하지 않고 내면에 沈潛시킨다. 극히 절제된 가운데에서 자신의 정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쌍쌍이 제비가 날아들고 살구꽃에 가랑비가 내리는 비에 꽃이 지는 것을 보고 발을 내린다. 그런 슬픈 광경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시인은 봄의 풍경에서도 쓸쓸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겹발을 내’리는 시적 화자의 행위는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시인의 마음이 함축되어

93) 『江南』, 121면.

94) 鄭玟, 「16·7세기 學唐風의 性格과 그 風情」, 『한국한문학연구』특집호, 1996, 198면.

여운을 느끼게 한다. 전체적으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자신의 정감을 차분히 표현하고 있다.

이 시의 분위기가 나른하면서도 화려하여 남용익은 鄭知常의 「醉後」와 비견해 보기도 했다.⁹⁵⁾ 또 景中情의 수법으로 시인의 의경이 사어의 이면에 함축되어 깊은 여운의 맛을 느끼게 해 그의 시가 당풍임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申欽의 「晴窓軟談」에서 봄날의 시름을 표현한 수작으로 당나라 시집 속에 두어도 손색이 없다⁹⁶⁾고 평하는 등 역대 비평가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淸風寒壁樓」에서 보여 주었던 豪放함과 달리 이 시기 충암은 이와 같은 매우 감각적인 시도 남기고 있다.

何物爭如村犬苦	어떤 것이 어찌 시골개의 고통만 하리
元心期不負恩多	마음속으로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 하네
吠殘五鼓霜風曉	오경까지 짖으니 서리 바람에 새벽이 오는데도
長守柴扉衛主家 ⁹⁷⁾	오래 사립을 지키면서 주인집을 지키네

시골 개라는 생활 속의 평범한 소재를 시화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시인은 먼저 시골개의 고통이 크다는 말로 시를 시작하여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골 개가 주인집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수한다고 하는 것은 시의 소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문면에 나타난 개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주인집을 지키는 개를 통하여 임금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村犬의 비유는 다름 아닌 충암 자신이다. 그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온갖 고통을 감수하고자 하는 각오를 시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충암은 서리가 불고 새벽이 오는데도 변함없이 주인을 지키겠다고 한다. 다

95) 『시화총림』, 『壺谷詩話』, 남계대학출판사, 2006, 347~348면. 金冲庵之江南殘夢晝厭厭 愁逐年光日日添 雙燕來時春欲春 杏花微雨下重簾 可敵鄭知常之桃花紅雨鳥喃喃 邊屋青山間翠嵐 一頂烏沙備不整 醉眠花塢夢江南...中略...第未知格調高下之如何也

96) 『象村集』6, 『晴窓軟談』下, 106면. 我朝文章巨公 非不蔚然輩出 務爲傳家 至於取法李唐者絕少 冲庵忘軒之後 崔慶昌白光勳李達數人最著 冲庵詩所傳誦人口自固多 如江南殘夢晝厭厭 愁逐年芳日日添 鶯燕不來春又暮 杏花微雨下重簾「江南」 西風木落錦江秋 烟霧蘋洲一望愁 日暮酒醒人去遠 不堪離思滿江樓「錦江樓」 尤爲膾炙者也 置之唐人集中 辨之不易

97) 「村犬」, 140면. 二首 중 一首, 주석에 “村犬之篇多矣 獨此詳知 故錄此”라고 되어 있다.

시 말하면 임금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변함없이 왕실에 충성을 하겠다는 그의 자세다. 그의 충성심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신하로서의 의를 지키겠다는 도학정신이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어 지키려하는 一片丹心の 충정이 충암 의식에 一貫하고 있었다.

主人恩愛終非淺	주인의 사랑이 끝내 알지도 않은데
野性由來不自除	시골을 그리는 성격은 스스로 없애지 못했네
霜月數聲雲外侶	서리 내린 달밤 구름 너머 짝의 소리를 듣고
籠中不覺意飄如 ⁹⁸⁾	조롱에 갇힌 것을 잊고서 날아오르기를 생각하네

이 시에서 충암은 날지 못하는 鳥籠속의 오리로 형상화 되어 있다. 여기서 조롱은 조정을 암시한다. 새장에 갇힌 기러기는 자신이 구름 저 너머로 날아가는 기러기와 처지가 다른 것을 망각하고 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기러기 소리를 듣고 홀연히 자신도 날아오르기를 꿈꾼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없다.

그는 끊임없이 종남산을 생각하고, 가의를 꿈꾸었지만 또한 천성적으로 엮매 이기를 싫어했다. 그는 임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타고난 야성, 즉 시골 취향적인 성격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 비유는 그가 조정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處士的 삶을 잊지 못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떠돌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가진 그가 임금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강한 욕구를 조롱 속에 갇힌 기러기를 대신해서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 그는 세상이 덧없음을 깨닫고 자연인 야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조롱 속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98) 「籠中鴨」, 125면.

3. 至治 實現을 위한 노력

충암이 서른 살이 되던 중종 10년 봄 왕비 윤씨가 元子를 낳고 7일 만에 타계하였다. 이렇게 되니 조정에는 중궁의 자리가 비게 되었다. 이에 충암은 潭陽府使 朴祥, 務安縣監 柳沃등과 함께 순창의 福泉寺에 모여 억울하게 폐출된 愼氏를 복위시킬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것이 유명한 「請復故妃愼氏疏」⁹⁹⁾이다. 이 상소는 충암의 생애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로 인하여 관직에서 내쫓기고 귀양을 갔으며 끝내 삶을 마친 것이 이 상소의 영향이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소에서 충암 등은 신씨가 폐출된 지 12년이 지나 당시의 내력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¹⁰⁰⁾ 신씨가 왕비가 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신씨는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시기 전부터 아름답고 곧으시어 좋은 짝으로 정하시고 의례를 갖추어 대비를 뵈었으니 고부의 의리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전하께서 대통을 이으시니 왕비의 자리에 바로 위치하시어 신민들의 축하를 받으시고 몸소 종묘사직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전하에게는 왕비의 존귀함이 이미 정해졌고 조종 신령들에게 제사를 받드는 데에는 백성들이 기대가 있었으니 모후의 명분이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대비께서 말을 어겼다는 꾸짖음이 없고 제사를 지내는데 물리쳐지는 허물이 없었으니 귀신과 인간이 원망하는 허물이 없었습니다.¹⁰¹⁾

모후로써의 명분이 이미 분명해졌으며 대비로부터 꾸짖음이 없고 제사를 지내는데 물리쳐지는 허물이 없었으니 결론적으로 귀신과 인간이 원망하는 허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씨가 내쳐진 것은 그의 아버지 愼守勤 때문이었다. 중종반정 때 연산군의 처남이자 중종의 장인인 愼守勤은 반정 참여를 중용받았으나 동참하지 않았다. 반정이 끝나고 반정 세력은 신수근을 처형하

99) 「請復故妃愼氏疏」, 200~204면.

100) 위의 글, 201면. 故妃愼氏被斥在外 殆一紀于茲 臣等未詳厥初之由不知有何大故 舉何大名..

101) 위와 같은 곳. 愼氏自殿下龍潛之初 載嘉協貞 卜以成好逑 備儀以見於慈殿 姑婦之義已定 及殿下入承大統 正位中壺 受臣民之賀 膺廟社之主 於殿下楡翟之尊已立 於祖宗神祇蘋藻之奉 有望於國人 母后之分已明 慈殿無違忤之譴 第禍無可去之愆 神人無恫怨之說

고 이어 章敬王后로 추봉된 신수근의 딸은 폐위시켰다. 아무런 허물이 없는 신씨가 쫓겨난 것은 오로지 ‘강맹한 신하들에게 제압을 당하여 배우자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¹⁰²⁾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암은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을 사납게 성토하였다.

지금 신씨는 폐할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전하께서 폐하셨으니 과연 무슨 명분입니까. 나라를 안정시킬 초기에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등이 신수근을 제거한 뒤에 왕비가 바로 그의 소생이라 아버지를 죽이고 조정에 들어가면 다른 날의 근심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자신들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사심을 가지고 왕비를 폐출하는 계책을 낸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이유가 없으며 또 명분도 없는 일입니다.¹⁰³⁾

신씨가 폐위당한 것은 오로지 朴元宗 등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충암의 성토는 날카롭고 사납기 그지없었다. 충암은 그들이 “이유가 없으며 또 명분도 없는 일”을 저지른 이유는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행위였다고 하면서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을 참을 수 없겠느냐고 하였다. 이 구절 즉 “是可忍也 孰不可忍也”는 주지하다시피 諸葛亮이 북벌에 나서면서 쓴 「出師表」에 나오는 구절이다. 한나라를 위해서 토벌을 해야 하는 “不共戴天”의 위나라와 마찬가지로 반정 세력도 “불공대천”이라는 것이다.

이제 내정에 주인이 없으니 이런 때에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시어 신씨를 다시 곤전의 자리에 세우신다면 천지의 마음이 받아들일 것이요 조정의 신령이 마땅하게 여기실 것이며 신민의 소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신 등은 분함과 울분을 가슴에 담은지가 오래되었습니 다. 그러나 이전에 이를 뺄어낼 수 없었던 것은 창경왕후께서 곤위에 계셨기 때문에 만약 신씨를 복위시키면 창경왕후의 지위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창경왕후께서 돌아가시어 곤위가 다시 비게 되었으니 바로 반정할 기회입니다.¹⁰⁴⁾

102) 위와 같은 곳. 殿下受制於強臣 不能保其伉儷之重

103) 위와 같은 곳. 今愼氏未聞有可廢之故 而殿下之廢之 果何名耶 當靖國之初 朴元宗柳順汀成希顏等 既除愼守勤 則以爲妃酒其出也 殺其父 而立其朝 慮有他日之患 曲爲自全之私 舞出黜廢之謀 茲固無故 而又無名也

104) 위의 글, 204면. 今內政缺主 宜因此時 廓然決斷 復正愼氏于坤后之位 則天地之心所享也 祖宗之靈所允也 臣民之望所副也 臣等胸抱憤鬱久矣 而前此不能申吐者 正以昌敬王后當壺若復愼氏 難爲昌敬地耳 今則昌敬上殯 壺位復缺 正反正之機會

이 상소는 권력권 밖에서 맴돌던 사람들이 훈구대신들을 겨냥한 일종의 도전장과도 같은 성격의 정치성을 띤 것으로 반정 세력에 대한 사람 출신들의 공개적인 도전이었다.

中興經濟資英傑	나라를 중흥시키는 다스림은 영결의 도움을 받는 것
河嶽種靈自有須	산천의 영기가 모이는 것은 쓸 데가 있어서라
手掣巨鰲撐斗極	몸소 큰 거북을 만들어 하늘을 지탱하고
身擎赫日上雲衢	몸소 붉은 해를 받쳐 들고 하늘에 올랐네
名垂竹帛昭星月	이름은 죽백에 남겨져 별과 달처럼 빛나고
勳在麒麟照畫圖	공적은 기린각에 그림으로 비추어 졌네
一老如今天不愁	이제 하늘이 사람을 남겨두지 않으니
舜廊從此缺都兪 ¹⁰⁵⁾	순임금 조정에 이제부터 화락한 것이 없겠구나

이 시는 成希顔의 輓詩이다. 이 시에서 충암은 성희안을 극찬한다. 그는 하늘을 떠받쳤으며, 이름을 竹帛에 남겼다. 이제 이 사람이 죽었으니 성군이 다스리는 나라의 조정에 군신이 화락하고 조화로운 모습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충암은 성희안을 칭송한 것이다. 성희안이 누구인가? 앞에서 보았듯이 충암이 이 상소문에서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성토를 하였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것처럼 성토하였던 사람을 칭송한 것은 충암이 성희안을 한 개인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 반정 세력의 일원으로 상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써의 성희안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조정에서 반정 세력을 추방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 사람도 반정세력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이에 공신측의 반격도 거세었다. 대사간 李荇이 “창경왕후께서 이미 원자를 낳으셨으니 국본이 이미 정해졌다. 만약 신씨를 복위시켜 왕자를 낳는 경사가 있게 되어 가례의 선후를 따지게 되면 신씨가 먼저이니 국본이 흔들릴 수 있다.”¹⁰⁶⁾고 하였다. 사실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으며 충암

105) 『代成同知挽成相希顔』, 130면

106) 金正國, 『己卯錄補遺』上, 『國譯大東野乘』 권3, 9면. 章敬既誕元子 國本已定 若復入愼氏 有王子之慶 而論嘉禮先後 則愼氏居先 國本或撓矣

등은 일대 곤경에 빠졌다. 무력한 임금은 “그대들의 말이 옳기는 하지만 이렇듯 국가의 대사를 몇 소신의 말만 들어 시행하겠느냐”고 하면서¹⁰⁷⁾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반정 세력의 위세에 눌린 나머지 내린 결정이었다.

상소를 올리기 전 충암은 朴祥의 시에 차운하여 시 한 수를 지었다.

千峯秋氣入	봉우리 봉우리에 가을 기운이 드니
崖骨始呈眞	벼랑 뼈가 진면목을 드러내네
晚翠嵐烟古	저물녘 어스름에 안개가 예스럽고
初丹薜薜新	막 붉어진 사철나무가 새롭다
涼兼緒*風緊	서늘함과 함께 가을바람이 세차고
聲軋萬林頻	소리가 숲에서 자주 울리네
虛牝悲前感	빈 골짜기 슬픔을 먼저 느끼고
幽居叩靜因	그윽한 거처에 고요하게 울리네
孤標斷埃壙	외로운 봉우리에 먼지가 끊기고
靈境秘威神	신령스런 경계에 위엄이 감춰졌네
逝節凋蘭病	계절이 가니 난초는 병들어 시들고
明朝介士貧	밝은 세상에 지조 있는 선비가 가난하다
流芳時欲罷	향기로운 시절이 끝나려 하는데
迷海孰知津	바다가 아른하니 누가 나루터를 알겠는가
延佇山中客	산 속의 나그네 우두커니 서 있으니
援枝**難遺人 ¹⁰⁸⁾	나무 가지 꺾어도 보내기 어렵다.

* 緒는 원주에 渚로도 되어 있다고 하였다.

** 枝는 원주에 桂로도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시에는 충암의 決起가 드러나 있다. 이 시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미지는

107) 『朝鮮王朝實錄』권15, 99면. 大司憲 權敏手 大司諫 李荇 等啓曰 潭陽府使朴祥 淳昌郡守金淨 上疏 敢發邪議 至爲駭愕 請掌致獄推其所以 此二人非無識者 稍識文字而如此 必有其意 臣等近入試官 今日始得聞之 故其疏章 不可留中 速示大臣 使下人洞知上意可也.

108) 『次昌世韻』, 143면.

양상하고 외로운 것이다. 가을이 되어 덮고 있던 초목이 다 시들어 앙상한 절벽이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다. 이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추위에도 시들지 않는 사철나무이다. 또 청명한 날씨에 먼지가 걷히니 외로운 봉우리가 더욱 위엄있게 솟았다.

이런 시절에 생각을 해본다. 난초는 병들어 시들고 지조있는 선비는 어렵게 산다. 시인은 이 시기를 향기롭다고 하면서도 나루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나루터를 모른다는 것은 孔子가 子路를 시켜 長沮와 桀溺에게 津을 물었던 고사를 상기시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는 의미이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타협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오로지 대의만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산속에서 우두커니 서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파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한 소를 울리기 전에 인간적 고민을 겪고 있다는 것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다.

상소가 올라가자 충암은 파동에 대한 책임자로 훈구파의 집요한 탄핵을 받아 보은에 杖配 되었다. 충암 등이 당시 집권층인 훈구파에 대한 공격은 소위 사림파를 결성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가까이는 기묘사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극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柳洵·鄭光弼 등이 말은 틀렸더라도 죄를 주는 것은 언로를 막는 것이라고 하면서 옹호하여 충암은 8월에 보은의 함림 역에 유배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다.¹⁰⁹⁾ 그러나 11월에 正言 趙光祖의 伸救로 다음해 3월에 석방이 되었다. 11월에는 司藝로 복직이 되었지만 나아가지 않고 俗離山 兜率庵에서 강학에만 힘썼다. 상소의 소용돌이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시기에 그는 훈구사장파의 정권유지를 위한 私利私慾을 지적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벼슬에 나가지 않았으면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한가하게 유람을 하였다. 특히 금강산 여행을 하면서는 많은 시를 썼다. 이를 연보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은 산수를 매우 좋아하여 항상 속세에서 벗어나 유람을 다니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

109) 金相助, 「冲庵 金淨의 「海島錄」 研究」, 『탐라문화연구』 17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데 유배에서 풀려나자 벼슬에 더욱 뜻이 없어져 숲속을 한가롭게 거닐면서 돌아가는 것을 잊었다. 이즈음에는 금강산에 들어가 경치 좋은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를 썼으니 이때 지은 「叢石亭重修記」, 「萬瀑洞」, 「金欄窟」 등의 시문은 모두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¹¹⁰⁾

여기에서 거론된 시 중 한 수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一片金欄地盡涯	한 조각 금빛 옷자락이 땅 끝에 있는데
輕船回泛小如鞋	가벼운 배 물에 떠도니 작은 신발 같구나
太初浪齧藏龍竇	태초에 파도가 물어뜯으니 용을 숨겨놓은 구멍 같고
萬束稜粧削鐵崖	만단의 모서리 장식은 쇠 절벽을 깎아놓았네
鰲極西傾疑可接	거북이 머리 서쪽으로 기울어 물에 닿은 것 같고
歸墟東泄孰窮倪	돌아온 터는 동쪽으로 새니 누가 끝을 볼 것인가
海天終古空深大	바다와 하늘은 예로부터 부질없이 깊고 크고

詞客元來浪嘔呢¹¹¹⁾ 시인은 원래부터 허랑하게 토하네

이 시는 천하 명산 金剛山을 구경하며 쓴 시라고는 하지만 이제 막 귀양에서 풀려나 아직 벼슬에 나가지 않은 유학자 충암의 시 같지 않게 화려하고 거대한 이미지로 가득하다. 시인의 시선은 땅 끝까지 닿아 있고, 의식은 태초에까지 미친다. 거북이 머리 云云하는 것은 중국 신화를 패러디한 것이다. 이 시는 마지막 두 구가 특히 재미있다. 실컷 태초부터 땅 끝까지 노래한 뒤에 바다와 하늘은 크고 깊고, 시인은 원래부터 허랑하게 근거 없는 이야기나 토해내는 존재라는 것이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金欄窟의 풍경을 읊어도 실제 풍경에 비하면 허랑하게 뺄어낸 것이라는 말인가! 이제 막 귀양에서 풀려난 흥가분한 심정으로 절경을 구경하면서 쓴 이 시는 豪放하면서도 飄逸한 느낌이 넘친다. 일찍부터 사람들이 애송한 연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충암의 금강산 유람시의 시에는 이처럼 허랑한 내용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110) 「年譜」, 239면. 先生雅好泉石 每有脫身出遊之志 及自謫所有還 益無意於仕 進遊遙林下徜徉忘返 至是入楓嶽周遍勝 多有題咏 所著叢石亭重修記萬瀑洞金欄窟等詩文 諧謔炙人口

111) 「金欄窟」, 152면.

落日毘盧頂 비로봉 꼭대기에 해가 떨어지니
 東溟杳遠天 동해바다가 먼 하늘에 아득하네
 碧巖鼓火宿 푸른 바위틈에서 불 지펴 자고서
 聯袂下蒼烟¹¹²⁾ 푸른 안개 속에 나란히 내려왔네

자연경물은 인간의 각종 정감과 융합하여 예술의 의경을 조성한다. 예술의 의경은 情景一致와 떨어질 수 없어서 인간의 정감과 대상의 형식이 합해져 하나가 된다. 이것이 바로 東洋美學에서 추구하는 物我同一, 情景融合의 경지이다.¹¹³⁾ 이 작품은 情·景의 융합을 꾀하는 당풍에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앞의 「金欄窟」에서 보여주는 크고 도도한 기세를 보여주면서도 다정다감한 인간의 정을 느끼게 한다. 직접 금강산을 통하여 감흥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을 가보지 않고서는 이 같은 작품의 제작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금강산은 흥취를 일으키는 대상으로 중요한 볼거리이다. 금강산을 보지 않고도 금강산 시의 명품 제작이 가능한 것은 宋詩 수법이다.¹¹⁴⁾

비로봉에 해가 넘어가니 東海 먼 하늘이 어두워졌다. 스님과 바위틈에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른 새벽 푸른 안개 속에 손을 잡고 나란히 함께 산을 내려왔다. 비로봉 산 위로 저물어 가는 노을과 하늘 저 편으로 아득하게 동해 바다가 어둠 속에 끝없이 펼쳐진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이미 어둠이 내려 바다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거대한 어둠을 안고 있는 동해는 신비스러움을 불러일으키는 탈속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시는 흔히 成石璘의 시¹¹⁵⁾와 비교된다. 성석린의 작품에서 금강산 밖에서 금강산을 관조하지만, 충암은 금강산 안에서 금강산을 즐긴다. 성석린의 작품에서는 금강산의 외양이 묘사되지 않으면 시가 되지 않았으나, 충암의 작품에서는 금강산의 외양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인의 흥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배경으로만 작용했을 뿐이다.¹¹⁶⁾ 충암은 대자연속에 묻혀서 가시적인 자연의 형

112) 「贈釋道心」, 150면.

113) 李澤厚/尹壽榮 譯, 『美的歷程』, 동문선 1994, 216~217면.

114) 閔丙秀, 『韓國漢詩大綱』, 태학사, 2013, 514면.

115) 성석린, 送僧之楓岳, 一萬二千峰 高低自不同 君看日輪上 高處最先紅

상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과 자연의 변화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끊임 없이 추구하였던 것이다.

역대 금강산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금강산을 소재로 유람한 흥감이 잔잔하면서도 도도하게 묘사되어 있다. 시어에서의 감각적인 느낌과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직접적으로 道心이라는 스님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극히 우회적이면서도 함축적인 방법을 구사함으로써 언어의 묘미를 잘 나타내고 있는 시이다. 그의 5言 絶句에 능숙한 솜씨를 보여준 시적 능력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금강산 비로봉에 올랐다가 하루를 묵고 내려오는 과정과 감회가 응축되어 있는 시이다.

白鳥清江畔	흰 새는 맑은 강 언덕에 있고
蒼崖十里餘	푸른 절벽은 십여 리에 번어 있네
人烟閑古郡	인가의 연기는 옛 고을에 한가롭고
空翠暗山居	비취빛 어두움이 산으로 드리우네
撫歲悲芳草	세월을 어루만지며 방초에 슬퍼하고
臨流愛戲魚	흐르는 물가에서 물고기와 노는 것을 좋아하네
山中援桂侶	산중에서 계수나무 타며 함께 놀던 짝을 데려오니
延佇久招予 ¹¹⁷⁾	오래 오래 멈춰 서서 나를 부르네

白鳥라는 제목 자체가 의미하듯 세속을 떠나 고고하게 지내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는 흰 새와 맑은 강과 높은 절벽을 좋아하였다. 흰 새는 맑고 淸淨한 마음을 가진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흰 새가 바라보는 경물은 곧 화자가 바라보는 주변의 경물이다. 흰 새가 가지고 있는 정감 또한 자신의 정감이고 기호이다. 흰 새는 단순히 나는 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깨끗하고 고상한 마음의 상징이다. 계수나무를 타고 노는 隱者와 짝하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은 아직 希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시가 주는 淸閑한 분위기와 방초를 슬퍼하며 노니는 고기를 회롱하는 백조의 淸白한 모습은 내향화

116) 이종목, 『우리 한시를 읽다』, 돌베개, 2009, 179~180면.

117) 「白鳥」, 151면.

된 자기의식의 표출이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 근거하며 어떤 상실감에서 오는 새로운 세계로의 지향의식이다. 따라서 인간사 무상함 속에서 자연에로의 의탁을 통하여 상실감을 채우고자 하는 의식이 깃들여 있다. 物外의 세계를 추구¹¹⁸⁾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신선이 산다는 滄洲의 세계를 동경하는 意趣¹¹⁹⁾는 도가의 禪美的 세계의 일단으로 한때 심취했던 老·莊의 영향¹²⁰⁾과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人散碧江流 사람 흩어졌으나 푸른 강은 흐르고
汚樽沙際留 돌 패인 곳 술동이는 모래 가에 남아있네
歸時頻顧首 돌아갈 때 자주 머리 돌려 바라보니
烟霧暗滄丘¹²¹⁾ 연기와 안개가 滄丘에 어둑하네

滄丘는 錦江 상류에 있는 청주의 塔山이다. 북쪽에는 용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강의 물줄기가 바위 사이로 쏟아져 흐르며 절경을 이루고 있다. 강가에는 너럭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움푹 파인 곳에 큰 구멍이 있다. 구멍에는 한 말이나 되는 술을 담을 수 있는 곳이다. 거기에서 친구들과 술을 담아 마시곤 했다고 한다. ‘汚樽’은 이것을 뜻한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지만 푸른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술동으로 삼은 반석에 패인 구멍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다. 이 시의 전반부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다. 그는 자연경물만 남겨두고 훌쩍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다. 창구의 경물들을 그리워하면서 못내 아쉬워 자주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창구의 경물은 불변하는데 지금은 연기와 안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그는 이를 통하여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迢迢山路出林遲 아득한 산길이라 숲 빠져 나오기 더디고

118) 「清風寒碧樓」, 111면... 何人脫身累 高臥寄滄洲

119) 위와 같은 곳... 何因脫身累 高臥寄滄洲

120) 「孤峯亂藁」, 219면. 十一箴中 ‘言箴’; 僕幼而好文筆 上探典墳 旁括老莊 言拂衆耳...

121) 「辭滄丘」, 153면.

唯見蕭蕭葉脫枝 쓸쓸히 잎이 진 가지만 보이네
 日暮鉤輻鳴潤谷 해 저물어 자고새가 시내 계곡에서 울고
 行人心慄虎過時¹²²⁾ 행인은 호랑이 다닐 때라 마음이 두렵네

충암은 疊語의 사용을 빈번하게 하였다. 주로 의성어나 의태어에 해당하지만 시 속에서 자신의 정감을 전달하는데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 첩어는 성음을 모의하는 것, 형상을 도회하는 것, 동작을 표현하는 것 등으로 다양하다. 그의 첩어 사용은 의태어가 대다수이고, 의성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산길은 그의 사고를 거친 산길이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산길을 제대로 묘사하기 위해 첩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무의 모습이다. 그에게는 쓸쓸하게 보였던 것이다. 이것을 ‘蕭蕭’를 첩하여 ‘蕭蕭’로 표현하여 쓸쓸함을 가시화할 수 있었다. 첩어를 사용하여 시의 묘사가 더욱 궤적이며 입체적인 공간감을 갖게 하였다.

迢迢는 산길을 묘사하는 말로서 공간적인 아득함과 시간적인 아득함을 동시에 나타낸다. 그리고 蕭蕭는 잎이 진 가지를 묘사하는 말로서 그가 느끼는 쓸쓸함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이 쓸쓸함이 더 커지면 두려움이 된다. 해 저물고 갈 길이 먼 행인이 밤길에 호랑이가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만큼이나 큰 두려움과 괴로움이다.

중중은 충암과 訥齋를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귀양에서 풀린 충암은 입조할 뜻이 없다고 하면서 부임하지 않았다. 그는 봄부터 여름까지 여러 차례 속리산에 들어가 兜率庵에 沈潛하며 성현들의 책을 읽고 연일 밤낮으로 단좌하여 고요하게 마음의 선악과 공사를 분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깊은 사색에 담겼다.¹²³⁾ 이 시기에 많은 선비들이 그의 거처를 알고 찾아와 수학하였으며, 그의 학문과 사상을 익혔다. 충암은 錦江 상류 청주 남쪽 옛 宋崖縣에 있던 滄丘에서 거처를 정하고 지냈다. 물이 아름답게 흐르고 돌과 물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용암이 있는 곳에서 丙子·丁丑年間을 지내게 되었으며 선유하며 낚시하고 시와 술로 스스로

122) 「山路」, 128면.

123) 「年譜」, 239면. 至是是非稱定翠奸屏黜因公議自上特命先生及訥齋給牒餘用先生無意立朝不赴除命自春夏以後累入俗離山樓兜率庵沈潛聖賢書仰而讀府而思夜以繼日兀然危坐若泥塑人爲居敬主靜之工默察此心於善惡公私之分

즐겼으며 출세하는 데는 뜻이 없었다.¹²⁴⁾

다음해 봄(32세) 충암은 副應敎로 부름을 받게 되고 7월에는 중종의 특명으로 同知成均館事 및 副提學으로 임명을 받았다.¹²⁵⁾ 충암은 여러 차례 입조를 사양하였으나 중종을 도와 至治의 이상을 실현하자라는 조광조의 권유로 본격적인 사림파의 개혁정치에 참여한 것이다.¹²⁶⁾ 조광조·김정 같은 덕망 있는 재야의 선비들이 등용되어 중종의 사랑과 촉망을 입게 되자 조정은 혁신적인 신진 사람의 예기로 가득하게 되었다. 33세(중종 13년) 봄에 대사헌에 제수를 받고 조광조와 함께 賢良科 설치를 건의하여 사장을 중심으로 한 과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실천적 덕행을 우선하는 도학정치의 발판을 마련하였다.¹²⁷⁾

掛鏡幽巖裏 그윽한 바위에 거울을 걸어놓으니
一塵時映息 온 먼지가 한꺼번에 씻기누나
君問笑何事 묻노니 무슨 일로 웃는가
江空秋月白¹²⁸⁾ 강은 비고 가을 달이 밝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淸淨한 이미지를 준다. 거울을 건다는 것은 달이 떠오른 것을 의미한다. 바위 위에 앉아서 달이 뜨는 것을 하늘에 거울을 걸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달빛에 비쳐 깨끗하게 보이는 세상을 시인은 먼지가 다 씻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온 세상은 빈 강만 고요하고 달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춘다. 승려에게 주는 시라는 사실이¹²⁹⁾ 청정한 이미지를 더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당시 충암이 지향하는 세계의 한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이때부터 다음해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충암의 생애에서 가장 득의한 시기였다. 그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도승지 대제학 형조판서 등의 요직을

124) 「年譜」, 240면. 滄丘在錦江上流卽清州之南古宋崖縣也龍巖在其北江流寫其間水石絕佳丙子丁丑間始卜居每釣船遊泳探勝樂放詩酒自娛無意出世

125) 『中宗實錄』12年 7月 丁丑; 傳曰副提學有歌 金淨可爲之

126) 「年譜」, 240면. 時 靜庵先生與先生 結道義交 而方爲上下之所依重 思欲協力贊襄 貽書敦勉 上亦召旨絡繹 先生始強起入 城肅命

127) 「年譜」, 241면. 三月請設賢良科 先生因朝講啓曰 薦舉親策 士林諧謂美事 而竊聞大臣有異議 上意未決 是年冬靜庵又啓曰 以爲上之志于治久 未見成效者 由不得人材也 若行此法 人材不患不得 遂準請

128) 「題徹詩卷」, 136~137면.

129) 이 시의 제목 아래에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다.

말하면서 그가 그리던 도학정치를 펼치기 위하여 매진하였다. 「연보」에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생과 정암은 요순 시절의 임금과 백성을 만드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서 아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말하면서도는 곡진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소학을 공부하게 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돈독하게 하고, 향약을 간행하여 백성들에게 윤리를 가르치고, 소격서를 혁파하여 제사의 법도를 바르게 하고, 현량과를 설치하여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고, 남발된 공훈을 깎아서 공이 없이 공신이 된 사람을 막은 것 등이 그것이다.¹³⁰⁾

이때 “金淨 등이 정국공신들을 부관참시하고 훈구대신들을 제거하려 한다 하니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한다”¹³¹⁾고 말한 사실이 고변되는 등 불길한 조짐들이 조정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때 그는 조정의 촉망은 높았으나 영화가 넘치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영직을 사퇴하고 학문에 침잠하여 도덕이 성취하려 임금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금의眷愛가 한창이어서 허락하는 명을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조광조의 개혁은 勳舊大臣들을 배제하고 일을 주도하는 세력의 독단속에서 이루어진 급진적 정치였다. 더욱이 중중은 개혁에 동조하면서도 매사에 엄격하게 구속하는 젊은 이상주의자들의 행동에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南袞, 沈貞, 洪景舟 등이「走肖爲王」의 밀모를 꾸며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靜庵 趙光祖는 綾州에 유배되었다가 결국은 사사되었다. 충암은 錦山에 유배되었다. 결국 중중을 도와 지치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新進士林派의 개혁의지는 중도에 좌절당하는 비운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時來可作明堂棟 때가 오면 명당의 기둥이 될 수 있었는데
事否先歸爨下柴 일이 잘못되어 먼저 불쏘시개가 되어 버렸네
不託窮崖老霜雪 궁벽한 벼랑에 의탁하여 눈서리와 늙지 못하고
慚羞樗櫟共成灰¹³²⁾ 보잘 것 없는 나무와 함께 재가 되는 것이 부끄럽다네

130) 「年譜」, 245면. 先生與靜菴 以堯舜君民爲己任 知無不言 言無不盡 如講明小學 以敦蒙養 刊行鄉約 以教民彝 罷昭格署 以正祀典 設賢良科 以顧俊父 削濫勳 以杜幸門之類 是也

131) 「年譜」, 243면. 時有信平君 康允禧 上變告 前牧使 金友曾 語允禧 曰 金淨等 近欲追論 朴元宗剖棺斬屍 削靖國功臣

이 시에는 시보다 훨씬 더 긴 다음과 같은 序文이 달려 있다.

나는 안사의와 더불어 고삐를 함께하고, 속리산에 들어갔다. 길가 들판에 소나무 몇 그루가 있었는데 반은 나무꾼들이 베어갔다. 사의가 말하길 “이 소나무는 도끼질을 당하지 않고 컸다면 기둥으로 쓰일 수도 있었을 텐데 아깝다! 그 재목으로 마땅하게 쓰지 못했구나.” 하였다. 나는 이에 “만약 이것이 깊은 골짜기의 깎아지른 벼랑 사람의 자취가 없는 곳에 자라면서 눈을 실컷 맞고 서리를 이기면서 늙어가는 것이 어찌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 불행하게도 사람 사는 곳에서 가까운 데에 생겨서 천하게도 아이들이나 마소에 의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말했다. 사의가 ‘아! 들판의 소나무들이 모두 이렇게 되겠구나.’ 하였다. 이에 나는 그의 마음을 간략하게 하여 들판의 소나무 절구 한 수를 읊었다¹³³⁾.

이 시에서 충암은 들판의 소나무를 보고 쓴 시로 때가 되면 명당의 기둥으로 쓰일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불쏘시개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한 것이다. 궁벽한 벼랑이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뜻한다. 그런 곳에서 자란 소나무는 인간의 방해받지 않고 자라 좋은 재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소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잘려 보잘 것 없는 나무들과 함께 떨감이 되어버린 것을 가슴 아파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시의 후반부이다. 여기에서 시인이 탄식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인은 “궁벽한 벼랑에 의탁하여 눈서리와 늪지 못하”는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잘 것 없는 나무와 함께 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신세한탄이 아니라 자책인 것이다. 국가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잘 것 없는 나무들과 함께 떨감이 되어버렸다.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132) 「野松」, 137면.

133) 위와 같은 곳. 僕與士毅偕轡 入俗離山 路傍原野有松數株 半爲樵人斫去 士毅曰: “是松也 斤斧不遽 得成其大 則棟樑之用可供 惜哉! 用不當其材.” 余曰: “使其生於窮谷懸絕跡之處 飽雪凌霜而老 何不可? 今不幸生近地 賤乃爲僮豎馬牛之所狎翫.” 士毅曰: “噫! 野松既盡將及矣.” 余略其意 口詠野松一絕云.

4. 流配와 挫折

충암은 그의 나이 서른다섯(중종 15년)에 錦山謫所로 가는 도중 고향에 가서 모친을 뵈고 왔다. 주지하다시피 귀양 도중에 고향에 들르고 친지를 만나는 것은 당시의 실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은 이를 빌미로 그가 도망을 치려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梏杖 백대를 맞고 珍島로 이배되었다가 다시 濟州島로 옮겨졌다. 충암은 이 제주도에서 끝내 해배되지 못하고 삶을 마쳤다.

제주도에서 충암은 위리안치되었다.¹³⁴⁾ 이 기간에 쓰여진 시는 『冲庵集』 권 3에 『海島錄』이라는 이름의 시집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유배인 충암 삶의 마지막 심회를 보여준다. 『해도록』은 총 36題에 43首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제작 순서에 따라 시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지막의 「題路傍松三首」는 해남에서 쓴 것이니까¹³⁵⁾ 어찌면 『해도록』에 수록되어 있는 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있다. 어쨌든 여기에 실려 있는 시들은 충암이 사약을 받고 죽을 때까지 유배지에서 겪었던 심리적 곡절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다.

귀양길에 충암은 海南에 도착하여 길 옆 노송아래에서 쉬게 되었다. 그는 絶句 三首를 지어 읊고 나무껍질을 벗겨서 거기에 써놓았는데¹³⁶⁾ 여기에는 사지에 귀양을 가면서 느끼는 절망감과 지치를 실현해보고자 했던 자부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는 고통 등을 잘 요약해 놓고 있다.

枝條摧落葉鬢髻	가지는 꺾이고 앞사귀는 흩어졌으니
斤斧餘身欲臥沙	도끼에 찍히고 남은 몸은 모래밭에 쓰러질 듯
望斷棟樑人世用	세상의 대들보로 쓰이려던 꿈은 사라졌구나
查牙堪作海仙槎	양상하게 남은 것으로 신선의 뗏목이나 만들어야겠네

134) 『中宗實錄』15年 6月庚辰 ; 傳曰 金淨奇導只杖一百 還發配所 近日被罪之人甚多 而猶無懲戒之意 其圍籬安置

135) 「年譜」, 249면. 先生至海南之海涯 憩道傍老松下 吟成三絶 白松木而書之曰

136) 『思齋集』, 권4. (민족문화추진회, 1988) 80면. 金提學淨 坐儻禍 杖流濟州 至海南之海涯 憩道傍老松下 吟成三絶 白松木而書之.

海風吹去悲聲壯 바닷바람 불어 슬픈 소리 거세지고
 山月高來瘦影疎 산달이 높이 뜨니 야윈 그림자 성글구나
 賴有直根泉下到 곧은 뿌리 샘 아래로 뿌리막음 힘입어
 雪霜標格未全除 눈서리도 높은 기상 어찌지 못하누나

欲庇炎程暍死民 폭폭 찌는 무더위에 죽는 백성을 덮어주고자
 遠辭嚴壑屈長身 멀리 바위구렁 하직하고 긴 몸을 굽힌다.
 斤斧日尋商火煮 나무꾼의 도끼는 날마다 찾아오고 장사꾼은 불지르니
 知功如政亦無人¹³⁷⁾ 진시황처럼 공을 아는 이 아무도 없으라.

백사장 주변 바닷가를 향해 늙은 소나무에 자신으로 비유하여 지치의 이상이 중도에서 꺾인 좌절의 비탄을 나무에 표현하였다. 소나무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그대로 찾고 있다. 뜨거운 햇볕에 지친 사람을 위해 깊은 산중을 떠나 왕래하는 길목에서 긴 몸을 드리운 소나무의 모습은 좌절당한 충암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제 동광으로 쓰일 가능성은 없어졌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쓰일 수 없게 된 것이다. 말라비틀어져 남은 것을 수습하여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뗏목이나 만들 수밖에 없다.

돌아보면 이 소나무는 날마다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와서 찍어냈으며 지나가는 장사꾼들이 불을 질러 제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소나무에 지치를 위해 노력하다가 좌절당한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알아줄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었다. 좌절한 충암이 소나무의 참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焚書坑儒를 저지른 진시황뿐이라는 표현에는 세상에 대한 통탄스러운 호소가 담겨 있다. 물론 진시황이 소나무를 대부에 봉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고사는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유학의 가르침에 따라 지치를 실현하려 하다가 좌절한 그가 시에 표현한 ‘政’은 즉 秦始皇만큼 자신을 알아주는 이 없다는 말은 자못 기이한 느낌을 준다.

137) 『題路傍松』, 167면. 이 시는 모두 三首이다. 『冲庵集』『海島錄』에 실려 있다. 『思齋拙言』, 『稗官雜記』에 이 시와 그에 얽힌 사연이 소개되어 있다.

바다 바람에 맞서 소리를 내는 소나무는 비록 쓰러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암시하고 있다. 권간들의 모략을 받아 죄인이 되고 육체적으로 병들어 버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다. 정치적으로 지치를 이루어보려 했지만 이제 다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세찬 바람과 맞서서 조금도 굴함이 없다. 깊은 밤 달이 높이 뜨면 뼈만 남은 가지는 앙상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땅속 깊이 뿌리를 드리웠기에 곳곳한 그 기상을 꺾지 못한다. 달빛이 비치는 소나무를 선명하게 형상화하여 그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소나무가 파리한 모습을 지녔지만 뿌리가 굳게 뻗어 그 높은 품격을 잃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땅속 깊이 든든히 뿌리내린 의리의 기상으로 이 시련의 날들을 견뎌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시이다. 정치적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자신의 기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충암 시에 자주 험난한 환경에 굴하지 않는 소나무가 등장하는 것은 견정한 정신에 대한 지향을 표출하기 위해서이다.

이 시는 최악의 절해고도로 향하여 가는 충암의 심적 상황이 잘 묘사되었다. 노송의 희망은 그의 희망이었고 불품없이 스러진 노송의 모습 또한 자신의 현재 모습과 다를 바가 아니었다. 꺾어지고 기울어진 노송을 보면서 다시 돌아올 기약 없는 먼 유배의 길을 떠나야 할 자신이 무한히도 처량했을 것이다. 그러한 심경이 구절마다 절실히 배여 있다. 이 시는 格韻이 맑고 원대하며(淸遠), 用意가 매우 절실하다. 이 시를 가지고 자신의 정황을 묘사했는데 그는 결국 자기 목숨을 보전하지 못했다. 동량으로 쓰이려던 꿈도 이미 사라졌고, 뗏목감이나 되려던 바람도 끊어졌으니 슬픈 일¹³⁸⁾이다. 이 시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어 서로 공감을 일으키고 슬퍼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¹³⁹⁾

충암은 庚辰年(중종 15년, 35세) 8월 21일¹⁴⁰⁾에 제주도에 도착하여 새로운 유배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때는 충암에게 있어 가장 절망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을 면하기는 하였지만 이미 그가 실현하고자 한 지치의 꿈은 산산이 깨지고 동지들은 갖은 곤욕을 치르고 이리저리 유배되었다. 가해자들로부터 趙光祖

138) 洪萬宗/ 安大會 譯註, 『小華詩評』, 國學資料院, 1995, 162~163면.

139) 許筠, 『海東野言』권3; 金提學淨 權流濟州 至海南之海 道路傍老松 下吟成立絶 白松木而書之曰 士林傳誦 莫不憐之.

140) 『沖庵集』, 『海島錄』에 수록된 ‘一撮’ 시의 주에서 “八月二十一日 到濟州後”라고 기록되어 있다.

· 朴祥 등과 함께 꼭 죽어야 할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충암이 살아날 가능성을 가지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상의 실현이 좌절된 마당에 더 이상의 삶은 별 의미를 갖지 못했을지도 모른다.¹⁴¹⁾

佳月重雲掩	고운 달은 겹구름에 가리어지고
迢迢暝色愁	아득히 컴컴한 속 시름뿐이라
淸光不可待	맑은 빛은 기할 수 없으니
深夜倚江樓 ¹⁴²⁾	깊은 밤 강 가 누각에 기대섰노라

己卯年에 지은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士禍 前인지 中에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¹⁴³⁾ 그러나 그 무렵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시는 단순하게 달을 읊은 시로 이른바 詠物詩라고 보기 쉽다. 그러나 여기에서 달은 의인화한 대상으로 설정되어 읊어지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여기서 달은 애뜻하게 그리운 한 인물로서 구체적으로는 벗이든 존경하는 누구이든, 혹은 임금님이든, 작품의 화자로서, 행위주체로서 등장한 작가 나와 함께 주축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나와 남을 함께 말하고 있는 시¹⁴⁴⁾라고 하겠다.

시인은 달이 뜬 밤 누각에 올라 답답하고 우울한 심회를 읊고 있다. 여기에서 佳月은 人君, 重雲은 조정의 權奸들로 비유되고 있다. 기묘사화 무렵 신진 사림과 인사들은 현실을 이렇게 인식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적 분위기를 暝色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사림의 불같은 개혁의지는 언제까지나 맑은 빛이 보일 때까지 무력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깊은 밤 강루에 올라 밤늦도록 기대어 서서 임금의 마음이 간신들의 흉계에 빛이 흐려진 것을, 구름에 달빛이 가려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변해버린 임금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리라 짐작하고 절망적인 심사로 어둠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141) 김상조, 앞의 글.

142) 「佳月」, 162면.

143) 『冲庵集』의 이 작품 바로 앞에 「贈送公碩赴燕」이 실렸는데, 그 제목 아래에 ‘此下己卯作’이라 부기되어 있어 이 작품의 저작시기를 알 수 있다.

130) 송준호평석, 『한국명가한시선』, 문헌과 해석사, 1999. 25면.

무력하게 어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宇宙從來遠 우주는 예로부터 아득하고
孤生本自浮 외로운 삶은 정처가 없네
片舟從此去 이제 조각배를 타고 떠나며
回首政悠悠¹⁴⁵⁾ 머리 돌려 바라보니 유유하구나

이 시는 귀양길에 珍島 碧波亭에 이르러 술에 취해 읊은 것이다.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 시기에 지은 시치고는 전체적으로 외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매우 여유가 있고 느긋하다. ‘우주는 아득하고’ ‘삶은 정처가 없’다는 말은 노장적인 느낌을 준다. 유학을 공부한 모든 유학자들의 사고에는 도가적 사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무결하고 영원무궁한 자연 속에 사는 불완전하고 덧없는 존재 인간이라는 표현에서는 노장적 느낌이 들기도 하다. 그의 문집 어디에도 충암이 노장을 공부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그가 한 때나마 노장에 심취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海東野言』에는 충암이 젊어서 노장에 빠졌다는 말을 변호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¹⁴⁶⁾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런 말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증거라 할 것이며, 충암이 노장에 전심한 것은 아니지만 한 때나마 거기에 기울어졌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의 제목 「渡壁波口號」는 상당한 기교가 부러져 있다. ‘碧波亭’은 진도에 있는 정자이다. 그런데 시 제목의 ‘도’는 ‘到’가 아니라 ‘渡’다. 때문에 이 시의 제목은 ‘벽과정에 이르러 읊’는 것이 아니라 ‘푸른 파도를 건너며 읊’는다고 해석된다. 그렇다고 진도 벽과정과 무관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碧波는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러한 기교를 부릴 수 있는 여유는 바로 노장에 대한 공부로 통하여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암은 유배를 떠나면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느끼기에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유배를 가는 길이다. 이제 바닷가에 이르러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悠悠’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

145) 『渡碧波口號』, 163면.

146) 『海東野言』3, 『國譯大東野乘』 권2, 681면.

것이 가능한 것은 아마도 ‘우주는 아득하고’ ‘삶은 정처가 없’다는 말은 노장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음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이 무렵까지만 해도 충암은 이번의 유배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살아서 돌아갈 희망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서 부치기도 하고¹⁴⁷⁾ 시를 써서 지인들과 이별을 하였다.¹⁴⁸⁾

天畔羈懷切	하늘 끝에서 나그네 회포 절절한데
分携葉脫初	나뭇잎 지기 시작할 때 손을 놓고 헤어지네
汝歸應拜母	너는 돌아가 어머니께 인사하겠지
兄住尙思吾	형은 남아 있으니 나를 생각하실거다
骨肉空幽夢	골육은 헛되이 아득한 꿈만 꾸고
親知各塞隅	친지들은 각자가 변방에 흩어졌다
海山瞻皎月	바닷가 산에 올라 밝은 달을 바라보니
風雨愼征途 ¹⁴⁹⁾	비바람 치는 길 조심하여 가거라

충암 시에서 사친과 골육의 정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도 그 중의 한 수이다. 이 시는 충암이 동생과 헤어지면서 동생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심정을 읊고 있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까지도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다. 이 시의 주에 윤 8월 9일에 지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는 ‘나뭇잎 지기 시작할 때’라고 한 것이다. 이별하는 시기가 절묘하다 할 것이다. 한 나무에서 나온 잎이 떨어질 때 다시 말하면 나무와 나뭇잎이 이별할 때 형제가 이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頷聯에서는 “너는 돌아가 어머니께 인사하겠지,” ‘어머님은 너를 보시고 이곳 유배지에 남아 있는 내 생각이 더욱 간절하실 것’이라고 하여 동생과의 이별을 슬

147) 「有寄」, 163면. 故林無限意 書付北歸人

148) 「驛亭別」, 「贈別」, 「贈弟別」등의 시(163면)가 있다.

149) 「贈弟別」, 163면.

피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머니의 시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멀리 떨어진 것은 어머니만이 아니다. 골육은 멀리 떨어져 서로 그리워만 하고 친지들도 변방에 흩어져 있다. 그나마 가까이 있던 동생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으로써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그저 ‘비바람이 치는 길을 조심해서 가’라는 염려만을 할 따름이다.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동생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타향에 홀로 남겨진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아픈 가슴을 안고 동생을 보내야 하는 이별의 목전에서 골육에 대한 사모의 정을 동생에게 전하는 유배인의 비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海國*恒陰翳	바닷가 땅은 항상 어둡침침하고
荒村盡日風	거친 마을엔 종일 바람이 부네
知春花自發	봄 온 줄 알아 꽃은 절로 피고
入夜月臨空	밤이 되면 하늘에 달이 떠 있네
鄉思千山外	천리 밖에서 고향 생각 간절하니
殘生絕島中	쇠잔한 내 인생은 외진 섬 가운데 있네
蒼天應有定	하늘이 정해놓은 것이 분명코 있으리니
何用哭途窮 ¹⁵⁰⁾	어찌 길이 궁벽하다고 통곡하라

*‘海國’은 ‘海曲’으로 된 것도 있고, 『國朝詩刪』에는 ‘江國’으로 되어 있다.

이 시는 제주도에 오기 전 35세 正月, 珍島에 移配되었을 때의 작품이다. 그러나 충암에게 있어 진도와 제주는 다 ‘海國’이었으며 자신은 유배객이었다. 따라서 느끼는 회포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즉 고독한 상황에서 느끼는 思鄉과 운명의 한스러움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거친 바다의 망망함과 거친 날씨의 섬 생활은 이전의 고향산천의 부모 형제 친구들의 생각으로 이어져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억눌린 현실은 적소생활을 순응해야하는 고충을 나타내고 있다.

섬은 항상 그늘지고 종일 바람이 분다. 봄이 왔는데 꽃은 저절로 피어나는데 시인의 시선은 그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본다. 하늘에는 고향에서 보

150) 「遺懷」, 163면.

있던 것과 같은 해와 달이 떠있다. 그가 지금 있는 곳과 고향에서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물인 달을 통해서 자신이 낯선 땅에 있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고향을 떠올리며 외딴 섬에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그러다가 홀연히 이것도 다 하늘이 정해놓은 것임을 깨닫는다. 이 까달음으로 시인은 유배 상황에서 느끼는 정신적인 갈등을 벗어난다. 그는 자신의 운명은 하늘에 맡기는 것이다. 이 시에서 ‘푸른 하늘의 결정(蒼天)’은 임금의 결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아도 앞의 설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충암은 귀양 초기부터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자신의 비운과는 상관없이 경물은 자연스럽게 변화의 질서에 따라 운행하고 있으니 더 슬펐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에 정해진 변화의 질서가 있듯이 자신에게도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으려니 생각하면서 슬픔에 빠져 있지는 않았다.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 큰 바다를 건너 이 기이한 지역을 밟고 기이한 풍속을 보는 것도 세간의 기이하고 장한 일이다. 오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고 그만두자고 해도 면할 수 없는 것이 운명으로 정해진 것 같으니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¹⁵¹⁾

충암은 “세상에 태어나 큰 바다를 건너 이 기이한 지역을 밟고 기이한 풍속을 보는 것도 세간의 기이하고 장한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룩한 것이다. 이 모습은 주어진 천명에 순응하면서서 자신의 처지를 체념한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충암은 “멀리 떨어진 곳이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絶國’을 관찰하고¹⁵²⁾ 유배 문학의 백미인 「濟州風土錄」을 썼다.¹⁵³⁾ 「제주풍토록」은 충암이 제주도를 관찰한 결과물이다. 여기에서 충암은 제주의 낯선 기후와 벌레가 들끓는 풍토에서부터 머리에 이지 않고 등에 지는 풍속 그리고 산물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151) 「濟州風土錄」, 197면. 男兒落地 橫截巨溟 足踏此異區 見此異俗 亦世間奇壯事 盖有欲來不得欲止不免者 似亦冥數前定 何足與言

152) 「絶國」, 164면. 絶國無相問 孤身棘室圍 夢知關塞近 僅作弟兄依 憂病工侵鬢 風霜未授衣 思心若明月 天末寄遙輝

153) 위의 글.

생각해보니 탐라는 섬이어서 뱃길이 멀고 풍랑과 도적의 걱정이 있다. 이 곳 인사들은 대개 북방에 유학하는 것을 꺼리니 도를 들은 사람이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풍속이 소박하고 비루하며 아둔하고 촌스러우며 (迷信) 믿기를 믿음을 좋아한다. 무리지은 사당들이 서로 바라다 보이며 징을 치고 북을 치는 소리가 서로 들리는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반드시 희생을 잡고, 소와 죽 술과 음식을 신에게 드린다. 이 때문에 제사가 경건하면 할수록 가축은 더욱 소모되고 산업도 더욱 손실이 나고 재난, 요사스러운 조화, 기근 역병과 도적이 번잡하게 일어나면 더욱 경건하여 태만하지 않다. 비록 인의를 내걸고 형벌과 위엄으로 잡아도 멈추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을 교화시킬 방안을 찾아보니 오직 부처가 가장 가깝다.¹⁵⁴⁾

이러한 주장은 충암이 승려들과 일정한 교분을 맺고 글을 주고받았던 것을 전제한다. 그러하더라도 昭格署를 폐지하기 위하여 어전에서 밤을 새우며 간쟁하던 것을 생각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인식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찾은 뒤 충암의 시는 매우 평화스러운 면을 보여준다.

微風和雨政廉纖 부드러운 바람에 비는 발처럼 가늘고
 烟景芳華入望添 안개 속에 아름다운 꽃들이 눈에 들어오네
 誰送天涯春色遍 이 하늘 끝까지 누가 봄을 보냈는지
 滿城花絮撲青帘¹⁵⁵⁾ 꽃솜이 성에 가득하니 술집을 찾는다

이 시는 맑고 화사하고 따스한 봄날의 풍경들이 나타나고 있다. 안개가 자욱한 사이로 보이는 향기로운 꽃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유배지에 와서 느껴지는 좌절감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잔잔한 바람이 불고 따스한 비에 마음까지 따스해지는 봄날, 향기

154) 「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 194면. 維耽羅國於海島 舟道曩遠 有風濤寇剽之虞 土之人士 率憚於游學北方 聞道者蓋鮮 以故 毗俗朴鄙 而癡野而好教 叢祠相望 鈺鼓相聞 祠必殺牲 牢糜酒食 以爲饗 以是 祠益謹而畜益耗 業益損 以至災沴妖訛饑饉癘疫 盜賊繁興 益度不怠 雖揭之以仁義 毆之以刑威 而不能已也 求其所以化之方 唯佛爲最近

155) 「微風花雨」, 164면.

로운 꽃이 눈에 들어온다. 홀로 방에 앉아 있는 나그네의 마음에 뜻밖의 좋은 소식
 이 올 것만 같은 날이다. 봄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과 기대이다. 성 가득
 하니 꽃망울이 맺히고 보송보송한 봉오리가 곧 터질 것만 같은 날이다. 지루하고
 긴 겨울의 폐쇄적이고 닫힌 삶에서, 봄은 개방적인 분위기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하늘 끝까지 누가 봄을 보냈는지’ 의아해 하는 표현에서 경이감이 느껴
 진다. 어떻게 이런 절지에까지 봄이 왔을까. 누가 보낸 것일까. 봄을 맞아 설레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그 속에서 시인은 지금까지 충과 효를 이루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골육과
 친지를 그리워하는 데에서 벗어나 온종일 술집을 찾아다니면서 봄을 즐기기도
 하고, 봄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변방에 봄이 가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으
 니 / 시 짓는 늙은이 혼자서 느낌이 많다”¹⁵⁶⁾고도 한다.¹⁵⁷⁾ 유배지에 와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평화로움을 찾은 충암의 마음이 읽어지는 시로 다른 시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생기가 있는 듯하다.¹⁵⁸⁾

投絕國兮作孤魂	절도의 땅에 던져져 외로운 혼이 되니
遺慈母兮隔天倫	자애로운 어머니를 남기고 천륜이 막혔구나.
遭斯世兮殞余身	이러한 세상을 만나 내 몸은 죽지만
乘雲氣兮歷帝閭	구름을 타고서 천제의 대궐문을 지나
從屈原兮高逍遙	굴원을 좇아 높은 데서 노닐 것이나
長夜冥兮何時朝	긴 밤이 어두우니 어느 때나 아침이 되려는지
爛丹衷兮埋草萊	빛나고 붉은 마음을 썩대에 매장하고
堂堂壯志兮中道催	당당한 장부의 뜻 중도에 꺾이었으니
嗚呼,	아아,
千秋萬歲兮應我哀 ¹⁵⁹⁾	천년 만년토록 응당 나를 위해 슬퍼하리라.

156) 「多字」, 165면. 邊城春盡無人惜 唯有詩翁情緒多

157) 김상조, 앞의 글.

158) 이런 경지는 ‘達觀’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는 ‘未完의 達觀’이라고 한 바
 있다. (김상조 앞의 글) 『海島錄』 전체를 보면 여전히 황량한 자연 속에서 고독과 우울함을 느끼는 시들이
 특정의 시기가 아니라 죽기 전까지에 걸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달관이 미완
 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159) 「臨絕辭」, 178면.

이 비장한 시 「臨絶辭」는 絶命詩로 죽음에 임하여 짧았던 그의 생을 돌아보며 한 맺힌 생을 비탄하는 시라 할 수 있다. 외로운 땅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이제 상명에 의해 비통한 결과를 맞는 침울한 심정과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죄책감이 나타나있다. 그는 원래 유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따라서 三綱五倫을 철저하게 실천하기를 강조했던 그였던 것이다. 스스로 實踐躬行해야 할 지도자적 위치에서 편모를 두고 먼저 죽으니 괴로웠을 것이다. 자신을 키우느라고 지극정성을 다하신 어머니가 애가 다하도록 비탄에 잠길 것을 생각하니 더욱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의 삶에 자부심은 있었다. 마음껏 펼쳐보지 못한 이상을 세상을 떠나면서도 구름을 타고 上帝의 문에 들어가 屈原과 노닐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충암은 충성으로 군왕을 위해 熱과 誠을 다한 굴원과, 왕도의 이상정치 실현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자신과의 배경 면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도 이 암흑세계가 언제나 끝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슬픔이 없을 수 없다. 이것은 절망의 벼랑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예전에 당당했던 큰 뜻이 사악한 무리에 의해 다 펴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렇지만 좌절당한 雄志가 충절을 아는 후세의 선비들이 한 맺혀 비운의 一代를 살다 간 자신을 위해 슬퍼하리라는 바람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 시는 정치적 좌절로 인한 정신적 고뇌를 가장 慷慨하면서도 悲壯하게 표현하고 있다.

기묘사화를 일으킨 南袞은 조광조를 사사하게 하고, 이들의 무죄를 상소하는 유생들이 끊이지 않자 중종에게 종용하여 결국 충암에게도 사사의 명을 내리게 하였다. 36세란 한창의 나이에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외로운 섬에서 절명해야 하는 현실, 가장 비애스러운 인생의 좌절이다. 어두운 시대를 밝혀 보려했던 참절한 심경과 의로운 마음을 풀 속에 매장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상황인 것이다.

‘당당한 장부의 뜻을 중도에 꺾이니 오호라 천만세 후에 나를 슬퍼하리라’라는 구절은 자신의 신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통탄과 함께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굽힘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암의 유배사에서 느끼는 悲壯美·悲慨美는 유배시의 의미를 높여주는 최대의 美學

的 成果¹⁶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충암의 『해도록』은 절해고도에서 절박한 운명의 종국에 서게 되는 그의 피맺힌 절규였다. 36세란 한창의 나이에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외로운 섬에서 죽어야만 하는 현실이야말로 지치를 위해 노력했던 가장 비애스러운 인생의 좌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붕괴 직전에 달관의 경지로 幽明의 岐路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태연자약한 그의 풍모가 여실히 나타난 그의 문학의 絶調라 하겠다. 어두운 시대를 밝혀 보려했던 처절한 심정과 의로운 정신을 풀 속에 매장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한 시대의 한계상황 앞에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좌절한 시인의 현주소였던 것이다.

160) 하정승, 『한국 한시의 분석과 해석』, 역락, 2011, 336면.

IV. 結論

본고에서 고찰한 冲庵 金淨은 조선 중기 국가의 기강이 서 가던 16세기에 유교의 왕도정치를 실현하려다가 좌절된 정치가이며 문인이었다. 그가 살다간 시대는 조선 전기의 혼란기인 燕山君 시대와 中宗反正, 사림파가 개혁을 부르짖던 중종 초반, 그리고 사림파가 숙청된 己卯土禍가 걸쳐 있다. 기묘사화의 중심인물인 조광조와 뜻을 함께 한 충암은 그의 나이 2살 때 공부를 시작하여 9살 때에는 사서에 통달하였고 좌전을 공부하였다. 일찍부터 유학에 잠심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나이 22세(중종 2년) 春中別試인 甲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그의 문명을 떨치고 탁월한 문재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애초에 과거에 그리 연연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명은 물리치지 못하여 과거시험을 보았다. 급제 후 그는 成均館 典籍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25세(중종 5년)때 초야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귀양’의 청을 올려 윤희를 받았고 고향인 忠淸都事로 부임하여 2년간의 외직생활을 하였다. 고향에 내려온 그는 먼저 고향 보은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고 그 후에도 종종 왕래를 하며 때로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직접 찾아 보살피며 봉양하였다. 이 해 여름과 가을에는 俗離山·淸風寒碧樓 등지를 두루 유람하면서 심취된 자연을 벗 삼아 淡白淸逸한 기상의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 후 湖堂에 선발되 訥齋 朴祥·陽谷 蘇世讓 등과 독서하며 경의를 토론하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시로 읊기도 하면서 학문을 수련하였다. 또한 중종으로부터 문명을 인정받아 대마도주의 규약을 위반한 ‘干恩의 罪’로 질책하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

그는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래 오직 학문의 완성과 수신의 자세로 경서에 탐닉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시문의 예리함을 간간이 보여 주었으며 공자의 유학에 그의 사상적 근거를 두고 정진하였다. 서른 살(중종 10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청복폐비신씨상소」를 올리게 되었다. 그는 潭陽府使 朴祥和 務安縣監 柳沃과 순창의 福泉寺에 모여 폐출된 愼氏를 복위시켜 칩으로 처를 삼는 일은

국가는 물론 인륜의 처지에서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던 것이다. 그러면서 반정의 초기에 朴元宗 등이 신수근을 처형하고 왕비를 폐출한 일이 국가를 위하기보다는 전혀 자신들의 보신책이었기 때문에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억압하여 국모를 내쫓았으니 만세의 죄인이라 주장하였다.

이 상소는 정치적 과문을 일으켰고 과동에 대한 책임자로 훈구파의 집요한 탄핵을 받아 보은에 杖配 되었다. 당시 집권층인 훈구파에 대한 공격은 소위 사림파를 형성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가까이는 기묘사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8월에 대사간과 대사헌에서 극형의 논주가 있었으나 좌상인 鄭光弼이 구원하여 함림역으로 유배하는 선에서 무마되어 다음해 3월에 석방이 되었다. 11월에는 司藝로 복직이 되었지만 나아가지 않고 俗離山 兜率庵에서 강학에만 힘썼다.

이 시기에 그는 훈구사장파의 정권유지를 위한 私利私慾을 지적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의 급박한 생활이라기보다는 여유가 있는 한가로운 생활이었다. 충암은 일체의 사환과의 인연을 끊고 俗離山·金剛山 등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쓴 시문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충암은 여러 차례 입조를 사양하였으나 다음해 봄에 등용되어 중종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지치의 치적을 쌓자는 조광조의 권유로 본격적인 사림파의 개혁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조광조와 함께 한 과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실천적 덕행을 우선하는 도학정치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혁신적인 신진 사림의 열기로 가득한 사림파는『소학』과『근사록』을 보급하여 예교를 두텁게 하였고, 향약을 보급하였으며 소격서를 혁파하여 祀典을 바로 잡았다. 賢良科를 설치하여 덕행 있는 인재를 널리 구하였다. 또한 靖國功臣들의 지나친 공훈을 깎아 요행의 권문을 막는 등 유학의 진흥과 도학정치에 힘을 기울였다. 조광조의 개혁은 훈구 대신들의 배제와 주도세력의 독단 속에서 이루어진 급진적 정치였기 때문에 이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더욱이 중종은 개혁에 동조하면서도 매사에 엄격하게 구속하는 이들의 행동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훈구파의 南袞, 沈貞, 洪景舟 등이「走肖爲王」으로 밀모를 꾸며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기묘사화로 인하여 정암은 綾州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되고, 충암은 錦山에 가는 도중 모친을 뵈고 온 것이 발각되어 楷杖 백대를 맞고 진도로 이배되었다가 다시 제주도로 위리안치 되었다. 庚申年(1520년) 음력 8

월21일에 절해고도인 제주에 도착한 그는 비운의 삶이었지만 도학자로서 經世濟民의 뜻을 굽힐 줄 몰랐다. 제주의 풍속이 미신을 숭상하여 잡귀의 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고 예법에 몽매한 것을 보고 「제주풍토록」을 편찬하여 풍속을 계몽하여 큰 변화를 가져왔다. 틈틈이 적소생활의 울직한 소회를 읊은 시를 상당수 남겼는데 그의 문집인 『충암집』 권3 『해도록』에 실려 있다.

중종16년 때 충암에게 자신의 명을 내리자 「임절사」를 남기고 비장한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 결국 중종을 도와 지치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신진사림과의 개혁의지는 중도에 좌절당하는 비운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사람과의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修己治人の 학문적 깊이를 터득하였고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일념으로 일관하였으며 전통적 유가의 지치주의 실천을 한 사람이었다.

충암은 좋은 시를 많이 지었으나 기묘사화로 인하여 좌절된 己卯名賢으로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숭앙을 받았다. 그는 작가뿐만 아니라 한문학사에 비중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 당시에 송시풍이주류를 이루었는데 당시풍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업적일 것이다. 그가 단명하지 않고 오래 살았다면 더욱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의 시에는 만물이 운행하는 이치를 살피면서 심성수양에 몰두하는 내용의 글이 여러 편 있으나 오히려 자신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사상 감정을 표출한 것이 더욱 많다. 즉 정치생활이나 방랑의 노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우울하게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삶이 평탄하게 지속되지 않고 유배와 방랑, 外職과 內職을 오가면서 대단히 굴곡 있는 생애를 살았던 점에 근원한다. 그것은 주로 자신의 포부가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느끼는 빈민, 갈등, 우울, 좌절 등이 표현된 시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현실에서의 갈등은 주로 어머니로 표상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혹은 귀향의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입신하여 관계에 진출한 이래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다는 자괴감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상으로 드러나서 고향은 어머니가 계시는 안온하고 조화로운 공간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정치현실을 풍자한 시를 살펴보면 그는 소나무와 산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의리정신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정치 풍자는 정치적 대의를 승

상하는 도학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났던 것이다. 그의 도학시는 경세지향적 성향이 짙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것은 修己보다 經世에 역점을 둔 그의 학문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36세란 한창의 나이에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외로운 섬에서 죽어야만 하는 현실이야말로 지치를 위해 노력했던 가장 비애스러운 인생의 좌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붕괴직전에 달관의 경지로 유명한 기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태연자약한 그의 풍모가 여실히 나타난 그의 문학의 절조라 하겠다. 어두운 시대를 밝혀 보려했던 처절한 심정과 의로운 정신을 풀 속에 매장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한 시대의 한계상황 앞에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좌절한 시인의 현주소였던 것이다.

이상으로 충암 김정의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그는 어려운 시대에 살다간 인물로 『충암집』을 통하여 본 그는 감성이 풍부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감정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으며 그는 理勝한 도학자이기보다는 文勝한 시인의 소질이 다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가이기 전에 시인이었다.

※참 고 문 헌

1. 資料

- 金淨, 『冲庵集』, 「韓國文集叢刊23」, 民族文化推進黨, 1988.
- 金淨 · 金鍾燮譯 『國譯 冲庵集』上·下, 鄉志文化社, 1998.
- 國史編纂委員會 編, 「中宗實錄」, 『韓國王朝實錄』, 탐구당, 1971.
- 許筠, 『國朝詩刪』, 韓國學文獻研究所, 아세아 문화사, 1983.
- 許筠, 『惺叟詩話』, 『許筠全集』,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71.
- 洪萬宗 / 安大會 譯註, 『小華詩評』, 國學資料院, 1995.
- 趙光祖, 『靜庵集』, 「韓國文集叢刊22」, 民族文化推進黨, 1988.
- 金安國, 『慕齋集』, 「韓國文集叢刊20」, 民族文化推進黨, 1988.
- 李珣, 『栗谷全書』, 「韓國文集叢刊45」, 民族文化推進黨, 1989.
- 申欽, 『象村集』, 「韓國文集叢刊6」, 民族文化推進黨, 1994.

2. 單行本

- 강민구 외 저, 『한국 한문학의 미학적 접근』, 보고사, 2012.
- 강응천 외 7명, 『16세기 성리학 유토피아』, 민음사, 2014.
- 계승범, 『중종의 시대』, 역사비평사, 2014.
- 김성언, 『한시를 위한 변명』,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3.
- 김 영, 『한국한문학의 현재적 의미』, 한울, 2008.

- 金宇基, 『朝鮮中期戚臣政治研究』, 集文堂, 2003.
- 김태완, 『책문』, 소나무, 2005.
- 金台俊, 『校註 朝鮮漢文學史』, 太學社, 1999.
- 김풍기, 『한시의 품격』, 창작과 비평, 2014.
- _____, 『옛 시와 더불어 배우며 살아가다』, 해토, 2004.
- _____, 『朝鮮前期文學論研究』, 「충암김정의 문학론과 시세계」, 太學社, 1996.
- _____, 『삼라만상을 열치다』, 푸르메, 2006.
- _____, 『조선 지식인의 서가를 탐하다』, 푸르메, 2009.
- 金興圭, 『文學과 歷史的 人間』, 창작과 비평사, 1980.
- 노장시, 『한유평전』, 연암서가, 2013.
- 류성준, 『初唐詩와 盛唐詩 연구』, 國學資料院, 2001.
- 閔丙秀, 『韓國漢詩大綱』, 태학사, 2013.
- 김려/ 박혜숙 옮김, 『부령을 그리며』, 들베개, 1998.
- 박삼수, 『왕유의 시세계』, 울산대학교편집부, 2006.
- 서경수 편저/엄경흠 역주, 『한시의 미학』, 보고사, 2001.
- 신정규, 굴원평전『장강을 떠도는 영혼』, 신서원, 2000.
- 소재영, 『조선조 문학의 탐구』, 아세아문화사, 1997.
- 孫五圭, 『山水文學研究』, 부산대학교출판사, 1994.
- 송재소, 『한국한시작가열전』, 한길사, 2011.
- 송준호 평석, 『韓國名家漢詩選』, 문헌과 해석사, 1999.
- 심경호,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6.
- _____, 『한시의 서정과 시인의 마음』, 서정시학, 2011.
- 안대회 / 이종묵, 『절해고도에 위리안치하라』, 북스코프, 2011.
- 안대회, 『새벽한시』, 태학사, 2014.
- _____, 『고전산문 산책』, 휴머니스트, 2008.
- 梁淳秘, 『濟州流配文學研究』,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2.
-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 지성사, 1999.
- _____, 『제주 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푸른역사, 2015.
- 양진건 엮음, 『제주유배문학자료집(1)』,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1.

- 왕유 / 이원섭역해, 『唐詩』, 현암사, 2012.
- 유교문화연구소 옮김, 『詩經』,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 유호진, 『韓國 漢詩의 人生 理想』, 태학사, 2006.
- 윤채근, 『신화가 된 천재들』, 랜덤하우스, 2007.
-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 이병주, 『한국 한시의 이해』, 민음사, 1987.
- 이병주 외 5 공저, 『韓國漢文學史』, 반도출판사, 1991.
- 李炳赫, 『韓國漢文學의 探究』, 국학자료원, 2003.
- _____, 『高麗末 性理學 受容과 漢詩』, 태학사, 2003.
-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 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0.
- 李種默,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3.
- _____, 『우리 한시를 읽다』, 돌베개, 2009.
- 李鍾燦, 『韓國 漢文學의 探究』, 以會文化社, 1998.
- _____, 『옛 시에 취하다』, 한걸음 더, 2010.
- 李泰鎭, 『朝鮮王朝의 儒敎政治와 王權』, 『韓國史論』23, 1990
- 李澤厚 / 尹壽榮 譯, 『美의 歷程』, 동문선, 1994.
- 임준철, 『조선중기 漢詩 意象 연구』, 일지사, 2011.
- 정 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 _____, 『한시 미학 산책』, 솔, 1999.
- 정만조 · 이근수 · 이성규, 『음애 이자와 기묘사림』, 지식산업사, 2004.
- 정요일, 『한문학의 논리』, 일조각, 2009.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2013.
- 池斗煥, 『朝鮮前期 儀禮研究』, 서울대출판부, 1994.
- 車溶柱, 『韓國 漢文學의 理解』, 景仁文化社, 2005.
- _____, 『韓國漢文學 作家研究3』, 아세아문화사, 2003.
- 최봉영, 『조선시대 유교문화』, 사계절, 1997.
- 최연식, 『조선의 지식계보학』, 옥당, 2015.
- 하정승, 『고려조 한시의 품격 연구』, 다운샘, 2002.
- _____, 『한국 한시의 분석과 해석』, 역락, 2011, 336면.

허경진, 『한시이야기』, 알마, 2014.
_____, 『許筠의 詩話』, 민음사, 1982.

3. 論文

康性能, 「冲庵 金淨의 海島錄 研究」,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8.
김갑기, 「충암 김정의 문학사상」, 『한국사상과 문화』3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金基東, 「冲庵 金淨의 流配文學考」, 경희대 석사논문, 1983.
金相助, 「冲庵 金淨의 海島錄」, 『耽羅文化』17,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7.
_____, 「冲庵 金淨의 濟州風土錄과 葵窓李健의 濟州風土記 比較연구」, 大東漢文學會, 2000.
金淳休, 「冲庵研究」, 『북천 심여택선생 회갑기념논총』, 1982.
김재형, 「조선시대 제주 유배인 실태 분석과 특징」, 제주대 석사논문, 2011.
金種振, 「冲庵 金淨의 文學世界」, 성균관대석사논문, 1985.
_____, 「16世紀 士林派 文學의 研究」, 己卯士林을 중심으로, 성균관대박사논문, 1991.
金豊起, 「冲庵 金淨의 文學論과 詩世界」, 어문학보 15집, 강원대 국어교육과, 1992.
金泰泳, 「冲庵 金淨의 生涯와 思想」, 호서문화연구13호, 충북대, 1995.
金洪哲, 「冲庵先生 年譜紹介」, 『청대한립』제4호, 1989.
朴守川, 「冲庵 金淨의 詩文學」, 한국한시학회「한국작가연구」4권, 1999.
梁淳秘, 「金淨의 濟州風土錄」, 『語文研究』, 제7권, 제3호, 1979.
_____, 「冲庵의 濟州流配漢詩考」, 『語文論集』23집, 고려대국어국문학회, 1981.
_____,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건국대박사논문, 1982.
_____, 「冲庵의 濟州風土錄 小考」, 『語文論集』, 제21집, 고려대, 1982.

- 유호진, 「충암시의 도학적 국면」, 『한국한문학연구』17, 한국한문학회, 1994.
- 李鐘燦, 「冲庵의 詩文學」, 『청대한림』제4호, 1989.
- 이진아, 「충암 김정의 시세계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李泰鎭, 「朝鮮王朝의 儒敎政治와 王權」, 『韓國史論』23, 1990.
- 林采明, 「冲庵 金淨의 詩世界 研究」, 단국대 대학원, 1997.
- 전송열, 「충암 김정의 시관과 시의 당풍적 특질」, 『연세어문학』, 30,31합집, 1999.
- 鄭 玟, 「16·17세기 學唐風의 性格과 그 風情」, 『한국한문학연구』특집호, 1996.
- 조동일, 「유배문학의 특성과 양상」, 『한국문화연구』9,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ABSTRACT

The Ultimate Governing for Effort and Frustration of Chungam Kim Jeong

Shin Soon-Ok

Kim Jeong(1486-1521) is a politician and writer who was frustrated --- Joseon dynasty in 16th century, the golden age of Joseon dynasty. The era in which he lived is the time with historic events such as JungJong in the era of Yeonsan, at the beginning of Jungjong when Sarim clamoured for reformation and finally, Kimyo in which Sarim was eliminated.

After two sahwass, Muo and Gabbja, Jungjong ascended to the throne trying to accomplish politics based on Confucian values. Hence, Sarim, who had been eliminated by Yeonsan, reappeared in the centre of politics. For this reason, a conflict between new Sarim and conservative Hungu was aggravated. But, Sarim intended to follow Confucian values, such as Gong and Mang to realize royal politics rather than following King's will. Those political ideas are called Jichi or Dohak. It asserts 'King and officials should learn Confucianism and practice and apply Confucian values to politics to make ideal society'. According to Jichi, to accomplish ideal politics, monarch, the core of politics, should reform himself and if not, there is no space to establish political system so it will make impossible to carry out political reform.

He participated in political reformation of Sarim and Jo Gwang-jo, who gave him the advice to contribute to Jichi, influenced it. He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Dohak politics that give priority to the prudence and also supplied Sohak and Geunsarok in order to strengthen moral values. He also reformed Sogyekseo and established Hyeonryangwa in search of talented people. Moreover, he focused on promoting Confucianism and Dohak politics, preventing connections with meritorious retainers. However, there was a problem already with arbitrary politics driven by the influence of the reformation. Jungjong sympathized with the reform but he was reluctant with them who tried to have him under control in a strict way.

Resistance of Sugu was a natural result, keeping in mind that Yeong reform power was obsessed with the strict principles. Jungjong was fed up with drastic reform and scared with the empowerment of Sarim. Consequently, Jo Kwang-jo and his party were purged. This is called Kimyosahwa when the conflict and antagonism were presented between Hungu who formed dominant power since the beginning of Joseon Dynasty and Sarim, the new political forces.

Although Cheungam was not evaluated as who had followed Seongrihak by Confucian academics, there is no doubt that he tried to accomplish the ideals of royal politics. He started political career at the age of 22 and worked for 10 years. Later, he was exiled for 5 years to Boeun and Jeju. Finally he was sentenced to death at the age of 33. He was exiled to Boeun because of the appeal of the deposed Queen Shin and of the false charge of Hungu at Kimyosahwa.

As a result of Kimyosahwa Chungam was moved to Jindo from Keumsa and finally he was placed in Jeju. Although the life of Chungam was a tragedy, he tried to realise the meaning of values to relieve people's suffering. He wrote an essay of Jeju people with the objective to illustrate customs and enlighten them.

Also he wrote a considerable number of poems with melancholic tone of exile life and these are published in the third volume of Choongamjip

named Haedorok. After being required to voluntary execution, he left Imjeolsa and ended his life.

His will for reformation to help Jungjong to realise ideal values of Jichi suffered a setback in midway. He was one of the key figures of Sarim and of the noted men of Kimyo who learned the idea of righteous man willing to improve himself. Despite the fact that he served as retainer for a short time he tried to tighten disciplines of the nation, practicing Jichi of traditional Confucianism.

In this dissertation, the poems of Choongam were analysed through Jichi doctrine, which he practiced. Also, this article examines his political ideology and thought through chronology. In addition, this article explores how his efforts and frustrations were showed in his literature work. It is true that there are numerous poems about self-cultivation of the mind and body but it'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ose poems where his personal life and political thought are presented.

This article covers from Confucian study on Jichi to Sahwan, Sachin and its variations, the efforts for the realisation of Jichi, and it concludes with the exile and the death of Choongam.

